



검판을 땅에 숨기는 모로나이  
본문 8페이지

성도의빛 6  
1970



## 영감의 멧세지

에즈라 태프트 벤슨

(십이 사로 정원회)

바울은 때와 영합하는 다음과 같은 권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에베소서 6:11-12)

사람의 방종에 대한 깊은 우려와 두려움을 적은 편지나 기타 간행물이 하루도 여러장씩 내 책상에 쌓입니다. 대개는 있는현재 내나라를 떠나 사랑하는 자식을 곧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두려움에 쌓인 부모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적은 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내부를 위협하는 악의 요소는 상당히 넓게 퍼져 있으며, 파괴적이고 음흉한 이 악은 이제 현대인의 음악, 미술, 흔히 말하는 성교육에 까지 침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악은 특히 약의 양산과 직결되고...값싼 잡지나 은밀히 출판되는 서적, TV, 영화, 라디오 등을 통하여 젊은이에게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협하는 무신론적이고 사악한 사회 독소에 대항하여 퇴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의 우리를 통채로 삼킬듯한 기세로 덤벼드는 악과 싸울 수 있으며 또 반드시 싸우지 않으면 안됩니다. 영감적인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수 많은 진리가 아직까지 변하지 아니하였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여 싸워야 겠습니다. 그밖에 달리 안전을 구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살아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는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와 더불어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1967년 10월 4일

공보부 등록 라-932

발행일 1970년 6월 1일

(통권 제59호)

발행인 : 서 현 보

편집인 : 홍 무 광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73-5331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210호

대체구좌 서울 1409

인쇄소 : 삼화 인쇄 주식회사

정 가 : 50원

1년 구독료(우송료 포함)

국내 450원

국외 선박 5불, 항공 7불

제 6 권 제 6 호

순 서

1970년 6월호

■ 권두언 :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데이비드 오. 맥케이 .....	1
■ 특별기사 : 모로나이 리차드 제이. 마샬 ■ .....	3
신앙개조의 공동 저자인가? 존 더블유. 웰치 .....	6
교만 풀 알. 치스만 .....	10
깨어남 리드 에이치. 브렛포드 .....	12
■ 어린이 성도의 벗 : 너무 작고, 너무 크고 사라 엘. 존슨 .....	15
어린 목자 헬렌 베이 기본스 .....	17
■ 청소년 매리온 디. 행스, 엘레인 캐논 .....	19
가장 위대한 특권 마릴린 맥킨 밀러 .....	20
■ 진리의 말씀 : 정결- 아름다운 말 리차드 엘. 이반스 .....	21
질문의 비법 스탠리 엠. 그래보우스키 .....	22
■ 상호 부조회 : 신권의 능력과 축복 마크 이. 피터슨 .....	24
내가 하는 대로 문론, 셸리 팩스만 .....	27
나는 참 용기를 보았다 진 하트 .....	29
■ 선교부장 멧세지 : 선한 삶 서현보 .....	32
■ 지방부장 멧세지 : 하나님의 용감한 종 엘마 배영천 .....	33
■ 내외소식 .....	34
■ 진리의 말씀 : 평범의 시 리차드 엘. 이반스 .....	표 4

표지 설명 : 모로나이가 서기 421년 경 금판을 땅에 숨기던 주위의 환경처럼 독자에게 많은 매혹과 독창적인 상상력은 불러 일으키게 해주는 사전도 별로 없을 것이다.

이 달의 표지로 실은 최근에 완성한 모로나이의 그림은 그 사건에 대한 단편적인 묘사를 오래도록 잊지 않게 해 줄 것이다. “금판을 땅에 숨기는 모로나이”의 그림은 교회가 위탁한 미국의 유명한 화가 톰 로벨씨가 그린 것으로 앞으로 전세계에 있는 교회의 방문자 센터에서 제시될 것이다.

#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고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

(본 기사는 고 맥케이 대관장님께서 1970년  
1월 18일에 서거하시기 전에 준비하신 것임)

● 구세주께서 산상 수훈을 통하여 말씀하신 글귀 중에 제가 전하고자 하는 요지의 주제가 실려 있으니, 곧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 6:33)고 하신 말씀입니다. 혹자는 이곳에서 이야기되는 “이 모든 것”이 전장(前章)에서 말씀하신 덕이라고도 하지만 그것이 예수께서 늘 말씀하시는 인간의 우주적인 삶이라고 좀더 현명하게 풀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나는 구세주께서 말씀하신 몇가지를 하나님의 자녀 개개인의 생활에 결부시켜 생각해보려 합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따르던 몇몇 사람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받아 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이를 사람이 사는 처소와 때를 구별함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야 하며 성실하고 충실하게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될 모든 것이 더하여 진다고 하는 확증을 갖도록 해 주어야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일과는 정반대가 되는 세상의 병을 구하는 이가 너무 많습니다. 삶을 크게 두개로 대별한다면 하나는 동물적인 것이요 다른 하나는 영적인 것입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 보다는 동물의 세계에서나 이야기될 종류의 쾌락을 좇는 이가 많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제 오랜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의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거니와 참된

# 만일 여러분이 최상의 성공과 마음의 안정을 구하려면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상을 실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행복과 기쁨과 유용함은 모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므로서 얻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마음을 기울여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특히 젊은이 여러분, 교회의 일로 관련된 분이나 세상의 젊은이거나를 막론하고—만일 여러분이 최상의 성공과 마음의 안정을 구하려면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이상을 실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나는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이야기한대로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의 사상과 이념이 여러분의 외모를 매만져 줄 것이므로 사상과 이념은 여러분을 보다 멋있는 청년, 더욱 맵씨있는 숙녀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가장 뛰어난 용모의 주인공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훌륭한 청년으로의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념은 또한 여러분을 보다 충실한 자녀로, 보다 현명한 학생으로, 보다 성실한 애인으로, 보다 절실한 동반자로, 보다 신의 깊은 벗으로, 보다 유익한 사회의 일꾼으로 그리고 보다 합당한 장래의 부모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을 이 땅에서 보다 성공적으로 맡은 바 창조의 일을 성실하게 도우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의 지능보다 더욱 현저한 것이 있고, 뛰어난 것보다 더욱 뛰어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람을 짓기도 하며, 아름다운 여인, 인류를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여인을 움직이는 요소가 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는 일이라야 정성을 다하여 실천에 옮기고, 믿는 일이라야 이에 대하여 깊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살아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절실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개조하려면 먼저 그들의 사고와 사상을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인간은 자기들의 이상을 초월해서 일하는 법이 없습니다. 설정한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는 많지만 이를 초월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국가의 운명은 현재 18~25세 층의 젊은이의 결의에 달려 있다” 고 유명한 어느 작가는 말했습니다.

바울은 좀 다른 방법으로 한 마디 한 마디에 의미를 넣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 5:16-17)

바울이 경계한 육체를 거스리는 일이라 함 여러분도 기억하겠지만 이러한 것들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 5:19-21)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고 이를 생각하고 또 이를 생활하므로써 달성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나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라디아 5:22-25)

우리는 모두 유한적인 속세에 살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방향 감각을 잃은 자도 있고, 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상이라는 닻을 단단히 움켜 잡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인간의 지능보다 훨씬 고상한 행복, 안락함, 고결한 성품 등은 모두 이러한 닻을 단단히 움켜 잡음으로써 얻어 집니다.

청년에게 허가 되는 무한한 기회가 참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높은 이상에 성실하게 임하여 이러한 기회가 더욱 빛을 발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정직, 유덕, 사랑의 이상에 충실하게 되며 실상 이런 것은 삶의 닻으로서 매일매일의 생활에 화평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여러분이 그렇게 살므로써 더욱 행복하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한 권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높은 이상을 따라 생활하므로써 여러분은 행복과 기쁨을 쟁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두 이러한 닻을 허가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바입니다. ○

# 모로나이

리차드 제이. 마샬

● 물문경을 읽어 본 사람이면 모로나이가 최후로 구모라 언덕에 금판을 감추지 않으면 안되었을 때의 상황의 절박함에 대하여 놀라움을 금하지 못합니다. 친히 어린 요셉 스미스에게 알려줄 때까지 일체 다른 사람에게는 발견되지 않도록 그가 금판을 인봉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물문경을 읽은 사람은 물론 물문경의 메시지를 연구하는 사람은 최근에 그려진 그림에서 그때의 상황을 배우고 감사해 합니다. 이미 알려진 극소수의 재료를 바탕으로 저명한 미국 화가 톰 로벨은 고심하여 모로나이의 모습을 연구했습니다. 그의 작품을 보면 모로나이가 거목의 숲속에 외롭게 눈 위에 꿰어 앉아 있습니다. 그것은 모로나이가 금판 위에 손을 모아 엮고 고개를 치켜 들고 눈을 감은채 성스러운 기록의 안전한 보존과 또 그의 현납을 위하여 기도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쇠붙이로 된 그의 투구가 달빛에 번쩍입니다. 레이번의 검은 역광으로 인하여 윤곽만 보입니다. 금방

파헤친 흙이 눈 위에 선명합니다. 그러나 절망에 허덕이는 단 하나의 전쟁터의 생존자로서의 나약한 인간상이 아님을 주목해 봅시다. 그의 드러난 팔은 그대로 갑옷이요 처든 얼굴에는 선지자로의 조용한 힘이 넘쳐 흐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나는 함께 할 자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더 살려두실지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물 8:5 참조)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어째서 머리는 백발일까요? 어째서 옷은 다 찢어졌습니까? 분명 젊은 사람은 아닙니다. 물문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모로나이가 구모라의 마지막 격전에서 살아남았을 때는 아직도 그가 젊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그 시기를 서기 385년에서 400년 정도로 잡습니다.

구모라 언덕의 전쟁을 마지막으로 준비한 후 36년쯤이 지난 다음에야 모로나이는 그의 마지막 기록을 적어 넣었습니다. 서기 384년에 아마도 모로나이의 부친의 나이가 74세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는 스스로 “연노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로나이가 구모라에서 그의 일만여 대군의 통솔권을 맡았을 때가 그의 이십대였는지, 삼십대였는지, 아니면 사십대였는지——. 마지막 격전이 끝난 다음, 모로나이에게는 돌아갈 집도 몸을 쉴 쉼터도 없었습니다. 그는 레이번인들의 손길을 피하여 지친 몸으로 방황하였습니다. 그의 의복에서는 한때 찬란했던 니파이 백성의 문명의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동물의 가죽으로 의복을 대신했을 망정, 그의 팔뚝엔 이전에 그려진 물문의

리차드 제이. 마샬은 교회 방문자 센터에 필요한 전시물을 만드는 사람의 일원이다.

팔뚝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굳은 힘살이 보입니다. (1968년 4월호 이라지 12페이지)

그가 모로나이라는 분명한 표시는 그가 지닌 금판입니다. 참으로 모로나이는 학식이 많았던 사람이었으며 그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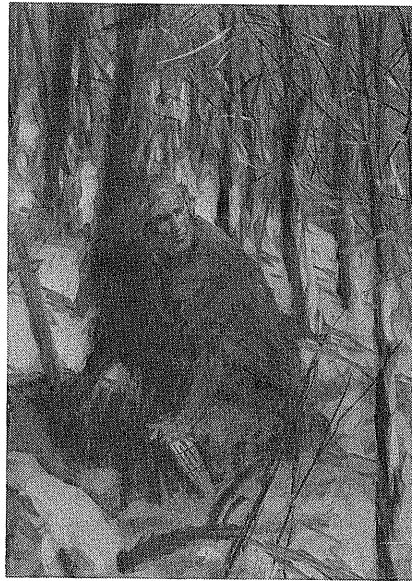
“보라우리는 우리가 아는 바 우리들에게 전해져 쓰이는대로 다듬어져서 백성들간에 개정된 애굽어라 일컬어지는 언어로 기록하였느니라.

우리의 판이 좀 컸더라면 히브리어



로 기록하였을 것이요, 히브리어도 또한 우리들에 의하여 변경되기는 하였으되, 히브리어로 기록하였더라면 보라 너희가 기록 중에서 불완전함을 찾아볼 수 없었으리라.”(몰 9 : 3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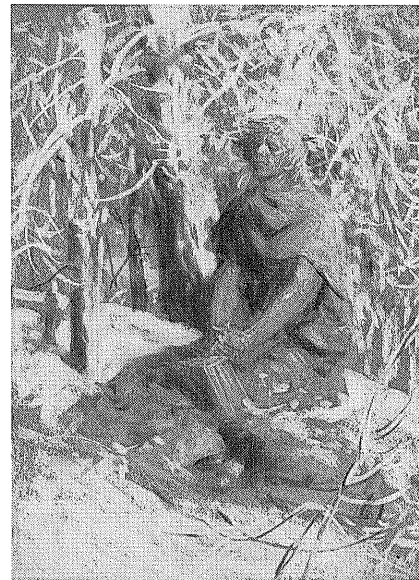
어떤 사람은 서기 400년 경에 모로나이가 기록을 거의 끝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다음의 구절을 인용합니다. “보라 이 백성들에 관하여 이것으로 말을 마치노라. 나는 물몬의 아들이요 나의 부친은 니파이의 후손이었나니”(몰 8 : 13) 추측컨대 그가 그의 역사 기록을 끝내고 나서 후에 다시 돌아와 기록과 번역을 계속하고 또 요약하기로 결정하여 잠시 금판을



감춘 뒤였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리저리 방황하면서도 기록을 지니고 다녀야 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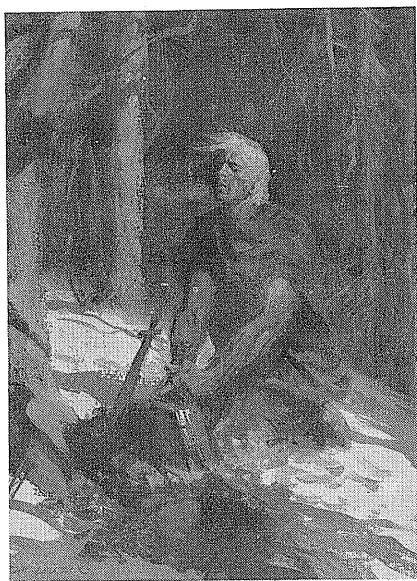
1877년 4월 25일 맨타이 신전 부지를 방문하신 브리감 영 대판장은 워랜 에스. 스노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모로나이 선지자가 서서 신전부지로 이 땅을 헌납하셨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신전을 짓기로 한 것이며 이 자리를 다른 곳으로는 옮기지 못합니다.”

거룩한 기록의 관리인으로서 모로나이는 그의 작업을 끝낼 때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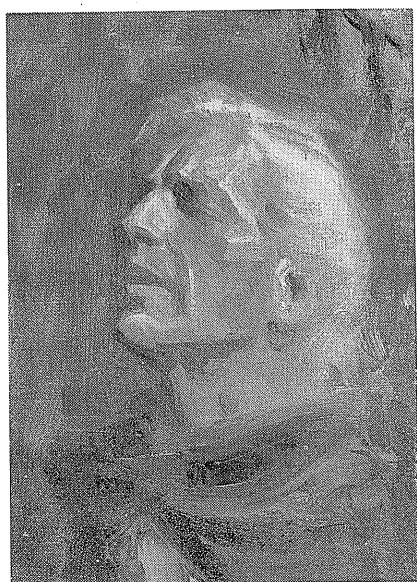
모로나이가 일단 기록을 멈춘 곳이  
 물몬서 8장 13절이라고 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다만 몇가지를 더 기  
 록”하려 하며 “이 백성의 종말에 관  
 하여” 기록하겠다고 한 (물 8 : 1, 13)  
 기록을 한 다음에 계속하였다는 사실  
 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이야기하고 나서 모로나이는 다  
 시 기록을 계속하노라고 하며 상당한  
 량을 추가합니다. 그는 물몬서의 9장  
 을 더 추가하며 이더판의 번역문을 신  
 고 끝으로 자기 이름을 따서 책을 기  
 록합니다. 그가 기록한 마지막 연대  
 는 서기 421년 입니다.

그러므로 외로운 모습의—그러나  
 한번도 자기의 간증을 잃지 않았던—  
 눈발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리스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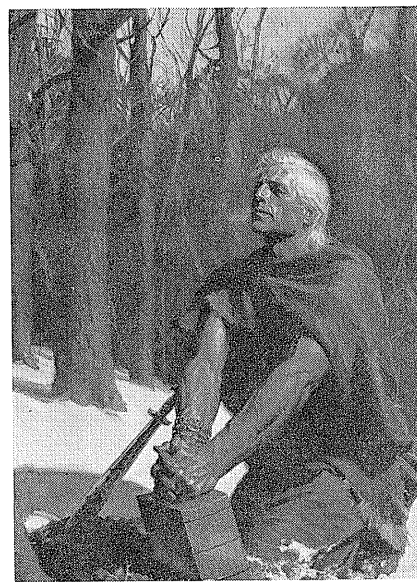
증거하는 제 2의 견증인이 되는 거룩  
 한 기록을 감추려 하는 모로나이는 사  
 실보다는 훨씬 더 나이들고 현명한 사  
 람입니다. 그는 “나 모로나이는 그리  
 스도를 부인하지 아니 할 것인즉……  
 (모로 1 : 3)이라 하였읍니다.

이분이 바로 계시자 요한이 시현으  
 로 본 천사가 될 분이었습니다.  
 “...온땅에 사는 백성들에게 전할 영  
 원한 복음을 가졌더라……”(계시록  
 14 : 6)고 계시록에는 기록하였읍니  
 다. 말일성도들은 예전에 요한이 언  
 급한 대로 모로나이가 진정한 천사였  
 으며 주님께서 1831년 11월 3일 오하  
 이오주 하이람에서 요셉 스미스에게  
 계시하셨을 때에도 모로나이 천사의  
 사명을 설명하신 것이라고 믿고 있읍  
 니다. “...오 땅의 주민들아, 이 일을  
 너희 가운데 알게하려고 나는 영원한  
 복음을 지닌 나의 천사를 보내어 하  
 늘을 날아가게 하노니, 저가 이미 어  
 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였고……”  
 (교성 133 : 36)



아이러니칼하게도 모로나이의 기록  
 의 종장에 보면 “나의 동포인 레이멘인  
 들에게……”(모로 10 : 1)라고 기록하  
 고 있으며 저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전하고 4절에서는 물몬 선교  
 사들이 물몬경에 대한 간증을 얻는  
 비결로 흔히 인용하여 전하는 권고의  
 말씀을 기록하였다.

로벨의 새로운 그림에 그려진 선지  
 자요, 장군이요, 나그네인 모로나이  
 의 모습은 그의 위대했던 이별의 인사가  
 울리는데도—그의 기록의 마지막  
 절—고독하거나 서글퍼 보이지 않는  
 다. “이제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작별  
 을 고하노니, 곧 하나님 의 낙원으로  
 가서 나의 영과 육이 다시 결합되며  
 공중을 나는 승리를 얻어, 산 자와 죽  
 은 자의 영원하신 재판관이신 여호와  
 의 즐거운 심판대에서 만날 때까지 쉬  
 리로다. 아멘”(모로 10 : 34) ○





요셉 스미스

신앙개조의 복음 원리와 사도 바울의 영감적인 기록을 비교하게 되면 이들 두서로 다른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가

# 「신앙개조의 공동저자인가?」

## 라는 의문을 품게 된다



바울 사도

존 더블유. 웰치

● 일반의 견해와는 달리 대부분의 신앙개조는 1842년 요셉 스미스가 웨스트워드의 서한을 서명하여 보내기 훨씬 이전에 기록되었다. 실제로는 요셉 스미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신앙개조가 쓰여졌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그것이 오늘날의 신앙개조처럼 13개 항목으로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사도 바울의 서한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미 베드로의 때로부터 소위 “난해한 것”으로 알려진 바울의 기록의 요지를 정리하고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을 요셉 스미스는 갖고 있었다. (베드로후서 3:16)

신앙개조와 바울의 기록은 그 부여된 사명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관계를 갖는다. 요셉 스미스는 복음의 회복을 이루어야 한다는 소명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의 사명은 초대 사도 시절에 가르쳐지고 전달된 영원한 복음의 원리를 강조하여 가르치는 것이었다. 사도 바울은 특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원리를 가르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을 통하여 바울은 하늘에 관한 지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진리로 개종하게 되었으며 이와 거의 비슷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1820년 요셉 스미스 앞에 나타나신 것이다. 이들 영감을 받은 두 사람의 임무나, 경험으로 얻은 진리의 빛을 생각할 때 이들의 근본적인 믿음이나 가치관이 서로 일치한다는 사실은 그리

놀랄 일이 못된다.

사도 바울의 이름이 신앙개조 마지막 절에 소개되는 것은 합당한 일이며 신앙개조 공동 저자로서의 서명쯤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다. 신앙개조의 열 세 번째 항목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우리는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 그리고 만인에게 선행을 믿는다. 진실로 바울의 훈계를 따르다 할 수 있으니 우리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이미 모든 것을 참아 왔으니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기를 원한다.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만 하고 듣기 좋으며 칭찬할만 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 않는다.

이곳에 언급된 “바울의 훈계”는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는다”고 되어 있다. 이 부분과 신앙개조의 내용은 너무나 흡사하다. 신앙개조 13조의 마지막 부분은 바울의 다른 권고의 말씀에서 발췌된 것이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옹호하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 4:8)



본 기사에서는 선교사, 사도의 말씀을 정반대의 의미로 만들어 버린 바울의 기독교인이나 소위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라는 교리 또는 여성 비하론을 다루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 다만 바울의 서한에 나타난 복음의 근본 원리를 알아보고져 하는 바이다. 물론의 이해 올로기에 바울의 영향이 얼마나 강하게 미쳤는가를 알 아주기 바란다.

히브리 사람에게 보낸 편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바울의 서한집에 포함되었다. 다른 사람이 쓴 것일지라도 엄연히 바울의 이름을 담고 있으며 아마도 바울의 설

명이 첨가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연두 교서를 대통령이 직접 썼다고 하여 대통령 연두 교서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과연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 또 다른 저자가 있다면 누구일까는 참으로 흥미있는 문제이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바울은 히브리말로 편지를 썼고 이를 누군가 희랍어로 번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무튼 체스터 벤티 파피리에 (2세기의 신약본) 보면 히브리서는 바울의 서한인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사이에 들어가 있었다.

### 신앙개조 제1조 : 신회

신앙개조 제1조 역시 바울의 서한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제1조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요셉 스미스가 분명하게 밝힌 바 대로의 신회를 믿고 있었으며 신회의 세분의 개체성을 강조하는 중에 이들의 공동 사명을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 쥬어다. (고린도후서 13 : 13)

### 신앙개조 제4조 : 복음의 제일 원칙과 의식

신앙개조 제4조는 복음의 제일 원칙과 의식을 다루고 있으며 물론이즘의 기본 요강이기도 하다.

우리는 복음의 첫째되는 원리와 의식은 제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제이, 회개. 제삼,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 제사 성신의 은사를 받기 위한 안수례임을 믿는다.

그러나 바울은 초기 개종자들에게 전하는 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히브리 5 : 12)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성도들에게 젓먹는 일, 곧 초보가 되는 것을 정리한 다음에라야 단단한 식물, 곧 고기라도 먹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바울은 이것을 복음의 제일 원칙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

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데 나아갈찌니라. (히브리서 6 : 1-2)

여기에도 나타났듯이 바울과 요셉 스미스가 이야기한 복음의 제일 원칙은 구절과 구절, 마디와 마디가 똑 같다.

### 신앙개조 제5조 : 권능

그리스도의 참 복음의 기본 운영은 신권에 의한다. 신권 의식의 현대적 번역은 신앙개조 제5조에 잘 나타나 있다.

우리는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며 또한 복음의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언과 권능있는 자의 안수에 의하여 하나님으로 부터 부름을 받아야 할 것을 믿는다.

이 현대의 해석이 초기 교회의 교리와 부합하는가? 물론 부합한다. 두번째 선교 여행에서 디모테를 개종시킨 바울은 그가 지닌 신권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그 신권을 받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다.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을 조심 없이 말며 (디모테전서 4 : 14)

신권 의식에 합당한 절차와 요점을 바울 사도나 요셉 스미스가 다같이 설명하고 있다. 결국 이 두분 이외에 이들보다 더 분명하게 신권의 권능과 신권 부여의 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인가?

### 신앙개조 제6조 : 신권의 운용

신권은 조직이다. 모든 직책과 권능에는 그에 따르는 사명이 있고 의무가 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도직과 신권을 연구하고 끝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

었던 바울은 신권에 관한 모두를 알고 있었다. 바울은 그가 가장 아끼는 에베소에 보내는 글에 커다란 조직으로의 교회의 면모를 설명하였고 신권 직책 하나 하나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여러 성구 중에 다음 한 가지를 인용해 본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에베소 4:11)

풀이된 정의의 내용도 이와 같다. “그의 은사로 일하되 더러는 사도로, 누구는 선지자로, 혹은 축복사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윗 구절을 신앙개조 제 6 조와 비교해 보자.

우리는 초대 교회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조직 즉 사도, 예언자, 감독, 교사, 축복사 등이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을 믿는다.

그 구성과 조화가 자못 완벽하다. 이는 전체로의 모습이 일부분의 모습보다는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다.

### 신앙개조 제7조 : 영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이해하려면 영과 직접 부딪쳐야 한다. 영으로 인한 기적을 개인적으로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영의 능력을 믿거나 감사하기가 어렵다. 신앙개조 제 7 조에 보면 요셉 스미스는 대체로 여섯 개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계시와 시현을 받는 은사, 병고치는 은사 및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 등을 믿는다.

바울도 역시 일련의 은사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그의 기록에는 아홉가지 은사가 설명되고 있으며 그 중 네개가 요셉 스미스의 것과 일치하고 있다.

어떤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고린도전서 12:8-10)

재정리된 표준에는 보다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다. “또 어떤이에게는 영에 의하여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을……”하는 식으로. 병 고치

는 은사, 예언이나 통변 및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는 바울이나 요셉 스미스가 공동으로 언급하였다. 요셉 스미스가 말하는 두가지 은사 곧, 시현의 은사와 계시의 은사는 사도 사울이 이야기하는 지혜, 지식, 신앙 등의 은사와 상통하는 것이다.

### 신앙개조 제12조 : 율법에의 순종

신앙개조 제12조를 상고해 보자. 사회질서 및 규율에 순종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옛날에도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꽤 중요한 문제로 다루었다. 일리노이에서의 물몬의 경우라던가 초대 기독교인의 경우, 이들은 죽음을 감수해야 하는 때에도 통치자나 권력기관의 뜻에 순종하였다. 바울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고(로마서 13:1) 로마인들을 권고하였다. 나아가 바울은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 할 자를 두려워 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로마서 13:7)고 하였다. 이 구절의 내용과 요지는 신앙개조 12조의 내용과 일치한다.

우리는 왕, 대통령, 통치자, 장관에게 순종함을 믿으며 또한 법률을 존중하고 지키며 지지함을 믿는다.

### 나머지 신앙개조의 참고

이제까지 우리는 신앙개조 제1, 4, 5, 6, 7, 12 및 13조에 관하여 잠시 생각하여 보았다. 그밖의 신앙개조의 내용이 비록 바울의 서한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사도의 다른 기록에 남아있다. 물론 그 중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도 있으며 우리는 구태여 이를 우리 구미에 맞도록 변경시키려는 노력은 시도하지 말아야겠다. 예를 들어서 가령 “물몬경”이라던가 “아메리카 대륙” 등의 낱말은 초기 회람의 서적에는 나와있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복음의 거의 전반에 걸친 원리가 사도 바울의 서한에 잘 기록되어 있다.

### 신앙개조 제2조 : 죄에 대한 벌

신앙개조 제2조는 바울의 서한 두절을 합한 내용이며 2조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우리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고 아담의 범법으로 인하여 형벌을 받지 아니함

을 믿는다.

이 글에는 두개의 원리가 담겨 있다. 첫째는 사람은 심는대로 거둔다는 원리, 둘째는 사람은 아담의 범법으로 인하여 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 두가지의 내용은 모두 바울의 글에 나타나 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 6:7)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22)

### 신앙개조 제3조 : 속죄와 순종

신앙개조 제3조를 보면 사람은 그리스도의 속죄와 복음의 율법을 지키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얻는다고 되어 있다. 이것이 바울의 기록의 전반적인 주제인고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과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한 글을 그의 기록에서 찾아내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골로새서 1:19-20)

온전하게 되었던 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5:9)

### 신앙개조 제8조 : 모든 계시는 경전

신앙개조 제8조는 물론은 거룩한 경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기록이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의 이러한 신앙이 역역하게 드러나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디모데전서 3:16)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통하여 주어진 모든 계시는 경전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바울이나 기타 다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느 누구에게도 계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 바울사도 만큼 하나님과 교제가 빈번했던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의 계시가 후세의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하

신앙개조	바울의 기록 참고
1	고린도후서 13:14
2	갈라디아 6:7, 고린도전서 15:22
3	골로새서 1:19-20, 히브리 5:9
4	히브리 6:1-2
5	디모데전서 4:14
6	에베소서 4:11
7	고린도전서 12:8-10
8	디모데후서 3:16, 고린도후서 13:1
9	고린도전서 2:10-11
10	히브리서 12:22, 데살로니가전서 2:19, 3:13
11	로마서 2:14-16
12	로마서 13:1, 7
13	고린도전서 13:7 빌립보서 4:8

여 신앙개조 제9조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과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모든 것과 앞으로도 하늘 나라에 관하여 위대하고 중대한 것을 많이 계시하실 것을 믿는다.

### 신앙개조 제10조 : 집합과 재림

신앙개조 제10조는 말일에 이스라엘이 다시 집합하며 그때에 영광스런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는 내용이다. 이와같은 내용의 이야기는 바울의 서한 여러 곳에 나타난다. 로마서 10장은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는 새로는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다. 데살로니가전서에는 주의 재림을 거듭 거듭 강조하고 있다(2:19, 3:13, 4:16, 5:2)

### 신앙개조 제11조 : 양심의 자유

마지막으로 신앙개조 제11조를 보면 인간은 자기 양심의 지시에 따라 어떠한 형태의 종교라도 가질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바울은 종교와 신앙을 강제로 하는 일이 합당치 않음을 깨달았다. 또한 그는 사람 개개

인의 양심의 인도로 종교의 선택을 할 수 있고 이로써 심판을 받게 됨을 알았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종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로마서 2:14-16)

그러므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형태로나 어디서나 무엇이랴도 예배하게 하라.” 하나님을 예배

할 수 있는 권리는 세상 만민의 특권이다.

이와같이 신앙개조 13조 전항은 사도 바울의 기록과 지극히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그중 여덟개는 바울의 글과 한자도 틀림이 없으며 나머지는 내용에 있어서 일치한다. 신앙개조의 주된 내용이 모두 사도 바울의 글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다. 바울의 가르침을 한 페이지에 요약하여 그토록 깊은 의미를 갖게한 요셉 스미스의 업적에서 우리는 그의 복음에 대한 깊은 신앙과 영감을 엿보게 된다. 이와같이 우리 교회는 옛날 사도 시절의 신앙개조를 근대 선지자의 손으로 회복하여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

## 교만

폴 알. 치스만

● 레이먼인 사무엘이 니파이인들에게 회개하라고 경고했을 때 그는 니파이인들의 멸망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더욱 명약 관화 하다고 했습니다.

……너희의 멸망은 분명하게 되었도다. 이는 너희가 평생을 두고 얻지 못할 것을 구하였음으로, 우리의 위대하고 영원한 머리 되시는 이의 뜻을 거스려 간악함을 행하며 행복을 구하였음이라. (힐라만서 13:38)

니파이인들의 간악한 행동은 점점 심해졌으며 값진 옷이나 보석 같은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둔다던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긴다던가 남의 것을 착취한다던가 하는 등의 일을 자행했습니다.

배도한 니파이인들의 사악함이 극에 달하였으므로 결국 이들의 불의함은 정죄를 자초하였으며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교훈을 우리 개인의 생활이나 사회생활에도 적용하여 불의함으로 우리의 내일을 그르치게 하는 잘못된 피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과거의 교훈을 역사의 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배도한 니파이인들이 사악한 행동을 통하여 그 나름으로 행복을 추구하려던 그 전말을 설명한 사무엘의 설명을 주의해 봅시다. 저들은 엘마가 배워 그의 아들을 가르쳤듯이 “사악함이 결코 행복일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배우고 말았을 것입니다. (앨리4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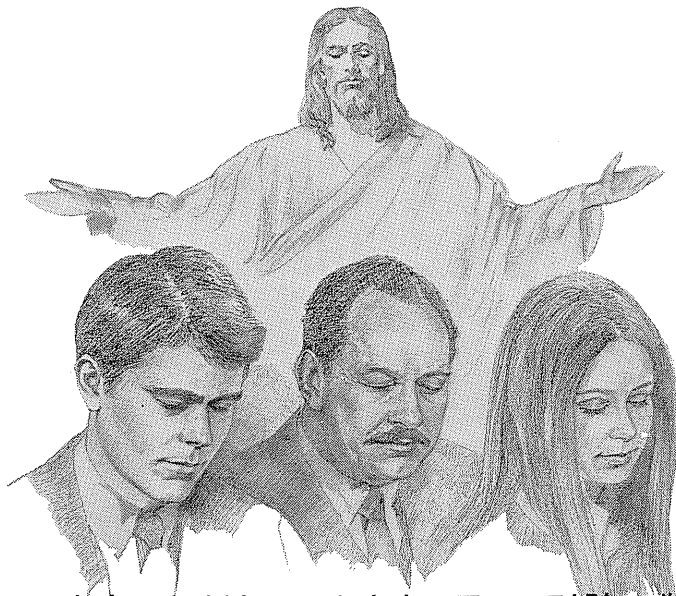
확실히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행복을 추구합니다. 어찌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 행복을 얻으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통하여 얻는 행복이 최상임을 알면서도 사악한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하려 하는 것일까요?

니파이는 그의 백성들이 약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의 후손들이 교만한 중에 악마의 유혹에 빠져 나의 형들의 후손에게 정복 당하더라. (니일 12:19)

니파이가 강조한 바 수많은 “악마의 유혹” 가운데 특히 교만을 지적한 사실은 참으로 의미 심장하다 하겠습니다. 사실 물몬경에서도 배도의 주 원인이 교만과 직결되었음을 설명한 부분이 예순번 이상이 됩니다.

주는 언제나 주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주의 율법에 따를 때 그것에 몇배가 넘는 축복을 받습니다. 때로는 위로와 화평의 영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축복을 받고, 때로는 영원한 행복과 기쁨의 확신을 축복으로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주 축복을 받을 때 그 축복을 내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신 스스로의



**교만과 이기심을 제거하도록 노력할 때 우리는 행복을 얻을 것이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모두를 갖추고 있으며 다른 크럼이나 조직 단체에 들어야 할 필요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위치와 임무에 대한 태도 및 자세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최근 전투에 참가하고 있는 한 군인 형제가 교회에서 기도를 부탁 받았을 때 진심에서 울어나오는 소리로 “감사합니다!”라고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겸허한 태도의 미덕을 가르쳤습니다.

현대인의 생활 속에는 또 다른 모습의 교만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교회의 회원들은 다른 사람의 직설적인 태도로 인하여 종종 마음을 상하게 됩니다. 일단 교만이 찾아들면 끝내는 비활동 회원이 되고 맙니다.

물문경에 보면 위대한 선지자가 나와 개종의 멧세지를 전할 때 사람들은 변창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늘 재물을 탐하였고 이로서 거짓 교만이 인간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였습니다. 교만이 싹틀 때 자라나는 세대가 그 조상의 교훈과 전쟁과 파멸의 결과의 교훈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이야기는 물문경에도 여러번 되풀이 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잠언 16:18)라는 옛말은 물문경에 나오는 니파이인들이 늘 지켰어야 할 귀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니파이와 사무엘의 이야기에 귀를 모으고 교만과 이기심을 제거하도록 노력할 때 우리는 과연 역사에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을까요? 그렇기만 한다면 우리는 행복을 얻을 것이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

입장이나 자격을 지나치게 과대 평가하거나 교만을 부리는 과오를 범합니다. 요셉 스미스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말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권세로 영적인 이야기를 전할 때에 우리는 스스로의 의로움을 지나치게 뿜 내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이 진정한 겸양의 덕을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간은 다분히 자기 중심적이며 남에게 사과하기란 또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주 머리 숙여 남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하므로써 자기가 격하된다고 생각하여 합당하게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스스로가 잘못했을 경우 이를 시인한다는 것이 또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자기 자신의 언어나 행동이 잘못 되었을 때 이를 정직하게 인정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교만을 무기로 하여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하려는 시도는 전혀 이상할 것이 못됩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는 수만 수천의 기독교, 비기독교인이 사는 이 땅에서 과연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우리는 진정한 뜻에서 형제 자매입니까, 아니면 우리와 전혀 이념을 달리 하는 자들의 통속적이고 피상적인 뜻의 그런 치레만의 형제 자매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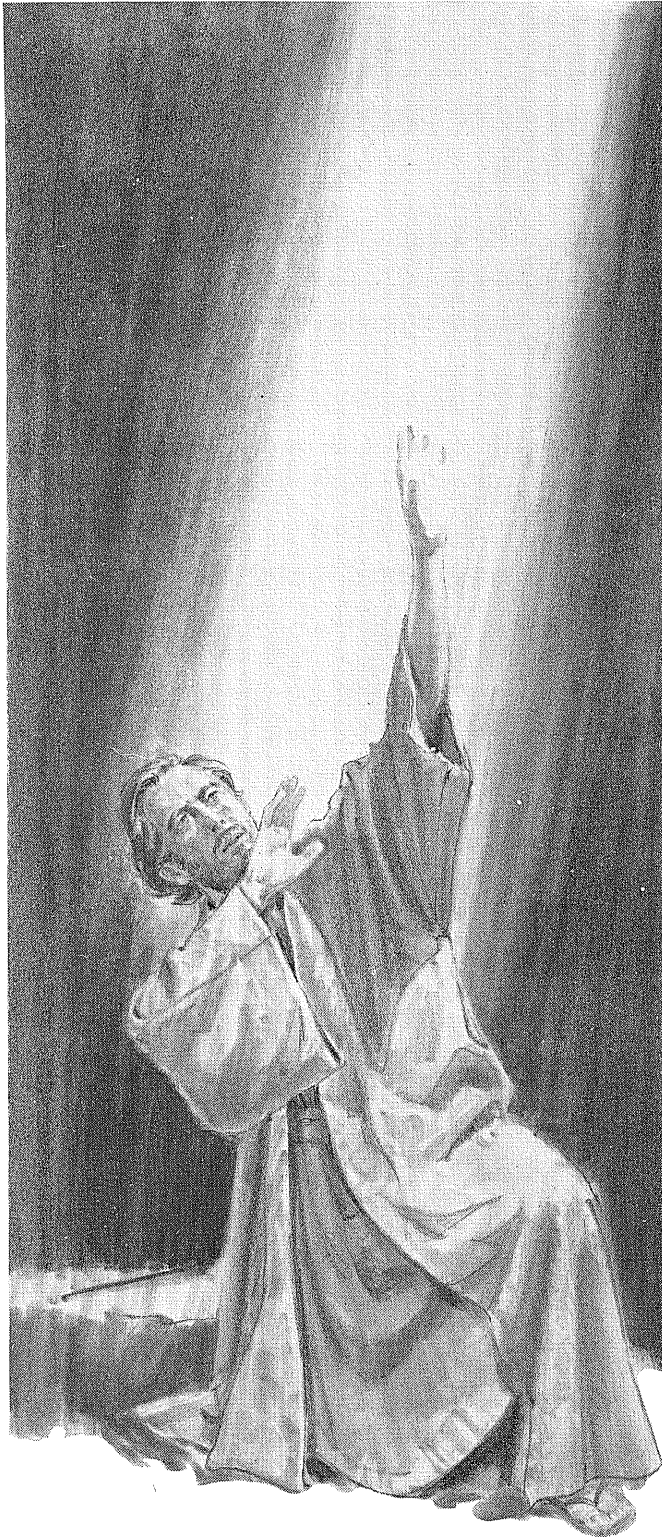
시대의 차이에서 오는 공백을 우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부모가 신세대의 자녀들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더 많은 것을 빨리 배우는 사실을 인정하므로써 체면을 잃게 됩니까? 자녀들 중에 연륜의 체험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만 터득할 수 있는 면에서도 자기들이 부모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습니까?

히피의 움직임의 뒷면에는 위선에 대한 항거와 사랑이 메마른 오늘날의 가정 질서에 도전하는 반항의 일면이 있기도 합니다. 자녀를 가꾸는 꾀으로만 생각하는 사고와 생활이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게는 했을 망정 사람들은 아직도 화평스런 가정과 질서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비틀어진 길로 뛰쳐 나간 세대에 대하여 노여움과 교만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요, 부모는 자식들이 이 세대의 혼란과 갈등을 바로 이해하도록 협조해 주어야겠습니다. 자녀의 필요와 요구를 바로 이해하고 파악하므로써 우리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다 보람되게 자녀를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들의 지위를 문제 삼고 있습니까? 교회내에 가입 회원에게 무슨 명예를 전할 만한 크럼이라도 있단 말입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온갖 보조 조직으로 연결되어 있어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거의

# 깨어남

리드 에이치. 브렛포드



“동이 트니 날이 밝는다”<sup>1)</sup>

“저희가 돌로 스테반을 치니……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무론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 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 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사도행전 7:59, 8:1, 9:1-5)

이곳에서의 사울의 경험이 사울의 생활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결국 사울은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사도행전 9:20)

주님의 계획의 올바른 이해와 주가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깨어나”서 “약속의 골짜기”로 돌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골짜기에서 비로소 우리의 삶은 풍성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삶으로 우리는 다짐을 종식시키고 도움과 조화를 구합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스스로의 은사와 능력을 개발시키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값없이 나누어 줍니다. 사람은 자기를 고립된 개인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늘 가족의 일원으로 일어섭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고전 12:26)

후에 바울이 된 사울은 이러한 깨어남을 체험했습니다. 개종 이전에 그는 성도를 박해했으나 후에는 주와 주님의 원리와 교회와 주의 삶에 대하여 무한한 뜻으로 헌신적인 봉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지상 사명을 끝낼 즈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왔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후 4:6, 7)

우리가 그러한 깨어남을 아직 체험하지 못하고 이제 그것을 이루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 두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1)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찬송가 130장

첫째, 우리는 진리를 알겠다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지속적인 진리 탐구를 통하여 보다 많은 지식을 구하고 생애를 두고 진리의 빛을 얻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나타내 보이며 기쁘게 주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그 원리에 따라 살며 그의 구원의 의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한 7:17)

“또한 너희가 내게 제물을 바치되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하라. 나 또한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내게 이르는 자를 불과 성령으로 침례할 것이요……” (니삼 9:20)

바울이 빛을 보고 소리를 들었던 그와 똑같은 경험을 우리가 모두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고 엘마처럼 천사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 요셉 스미스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두가지에 충실하면 우리도 뜻있는 깨어남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새로운 영적, 지적, 세상적인 발전을 쌓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화평과 열락과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우리가 스테반에게 돌을 던졌을 때 그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사도행 7:59-60)라 하였읍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읍니다. 그때 사울은 바로 그 무리와 더불어 스테반의 죽음을 확인하였읍니다.

스테반의 죽음에 임하여 드린 기도로 말미암아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은 무한히 노력하였으나 스테반이 죽던 그 정경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읍니다.

그때 그 사울의 심정과 같은 심정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쓴 사람<sup>2)</sup>이 있습니다.

『앤디 드레이크는 우직하고 착한, 모두가 좋아하는 몸집이 작은 사람이었다. 여러해를 두고 나는 왜 우리가 그렇게 했나를 생각해 보았다. 마귀의 야성이 착한 성품을 압도하는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전혀 낯이 나간 때문이었을까? 인간의 인연이 인간의 영혼보다 더 중요하다는 혼란된 민족으로 틀어져 있었을

까? 아니면 사기 모조품 금강석이 정말 금강석보다 더 값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까?

그는 농담을 참 잘 받아 냈다. 눈을 껌벅거리면서 농담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늘 미소를 담고 응대하였었다. 아마 그는 “나는 식탁에서 부스러기만을 들어도 행복해”라고 말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우리 2학년 학생들이 우리 구름에 앤디를 가담시켜 주면서 특별 회비를 받겠다고 했는데 앤디는 선선히 이를 물었다. 누군가가 지어낸 앤디를 놀리는 노래도 우리는 갖고 있었다.

위에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왜 우리가 앤디에게서 특별 입회비를 받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낼 수가 없다. 우리 중에 앤디의 아버지가 감옥에 갇혔거나 앤디의 어머니가 하급 세탁부로 일했다는 사실을 입에 담은 사람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큰 것에 아첨하고 작은 것에 오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이들이거나 전혀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때 우리들의 태도가 그랬음을 말하려 함이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모두 앤디를, —그때 그 순간까지— 모두 좋아 했다. 그런데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는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우리는 그를 원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말했다. 누가 그랬나? 먼저 제프를 탓할 수 밖에. 그러나 정직하게 말해서 나는 그 이야기, 그토록 잔인한 결말을 맺게한 이야기를 누가 발설했는지를 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를 안는다. 결국은 우리 모두가 그렇다. 우리 모두가 아픔을 썩어야 했으니까.

이제 아픔과 회한의 느낌으로 돌이켜 보건대 나는 정말 내가 한 그 행동을 스스로 원하지 않았다. 정말 벌써 여러해를 두고 그로 인하여 나는 울지만. 하루는 나는 별로 달갑지 않은, 그러나 내 입장에 아주 잘 부합되는 이야기를 읽게 되었다. “지옥에서도 가장 뜨거운 구석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물어물한 사람이 가는 곳이다”라는.

그때 주말에도 여니 때처럼 어울려서들 놀기로 하였다. 금요일 학교 수업을 끝내고 모두들 우리 집에서 모여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에 천막을 치고 놀기로 결정하였다. 우리 어머니가 거의 모든 준비를 맡아 주셨고 앤디의 점심까지 따로 싸 주셨다.

우리가 천막을 치고 있었을 때 우리는 이미 우리

2) 제랄드 토저슨 저, 작자에 대하여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끼리만 남아 멧대로 들떠 있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 즉 내가 준비한 파티이니 내가 앤디를 따돌려 보내야 한다고. 나는 오랫동안 앤디가 나를 다른 아이들 보다는 더 생각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가 나를 쳐다 볼 때의 그 눈에서 나는 무한한 신의와 기대와 충성심을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그런 눈이 좋았다.

나는 아직도 그가 그 긴 나무 숲을 지나 낮익은 쉼타를 걸치고 낡아 녹이 쓴 여자용 자전거—물 호스로 바퀴를 감은—를 몰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행복한 표정으로 달려 오던 모습을 눈으로 보는 것 같다. 그 나이가 되도록 제법되게 한번 놀아 보지 못하다가 이제야 잠시 기쁨을 얻겠다는 그의 모습.

그는 내가 서 있는 천막 쪽으로 손을 흔들며 다가왔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자전거를 세게 몰아 내 앞으로 질주해 왔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천막 안에 몸을 숨기고 전개되는 상황을 엿보느라고 자못 긴장하여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는 왜 차분하지 않을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저를 반갑게 맞아 들이지 않는 걸 눈치 채지 못한단 말인가?

그러나 문득 앤디는 사태를 눈치 챘다. 그는 그의 우직한 얼굴에 난감한 빛을 띄었다. 그는 드디어 입을 열었다. “뭔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놀이를 갖자” 어두운 것에 적응된 그는 낮을 쫓 그리지는 않았다. 나의 입에서 새어 나간 소리를 드디어 나는 들었다. “앤디! 우린 네가 필요하지 않아!”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 그의 두눈에 굵다란 눈물이 피었던 것을 나는 지금도 “분명히” 기억한다.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이제까지 수백번 그 모습을 기억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 때 그가 나를 바라보던 그 얼어붙은 순간의 모습은 무엇이였을까? 그것은 그러나 증오는 아니었다. 그것이 불신이였을까? 충격이었을까? 아니, 나에게 대한 동정이였을까?

마침내 한숨이 그의 입술을 새었다. 그는 한 마디의 이야기도 전하지 않고 돌아섰다. 처음에는 넘어질 듯 휘청 비틀거렸다. 그러나 자전거로 뛰어가 올라타더니 힘을 다해 발을 굴렀다.

내가 천막으로 들어섰을 때 누군가가 앤디를 놀리는 노래를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서 멈췄다.

따라 부르던 모두가 동시에 입을 다물었다. 아무도 말하는 자가 없었으나 우리는 모두 알았다. 우리가

참으로 가혹한 짓을 했다는 사실을, 그때 나는 뜨겁도록 절실하게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태 25:40)

그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우리는 하나를 희생시켜 그로서 전혀 무저항이었던 그에게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다.

앤디가 학교에 출석하는 상태가 고르지 않아 말을 차일 피일 밀다가 드디어 그가 학교를 그만 두었음을 알았다. 그는 영영 떠난 것이다. 그가 영 떠나갔다는 사실은 나의 고통을 몇만배로 확대시켰다. 어쩌다가 그와 부딪게 되었을 때 나는 의식적으로 그를 피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나는 이제 너무 오랫동안 그와 이야기할 마음을 다듬기 위해서 헛되이 씨름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나는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완전하게 들려주고 싶었다. 나는 이제 그 기회를 상실하고 만 것이다. 그를 끌어안고 함께 울 수만 있었더라면 그것으로 해결될 수 있었으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다시는 앤디 드레이크를 보지 못했으며 그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 길조차 없다. 그후 나는 15년을 선생으로 일해 왔다. 앤디와 비슷한 수백명을 보고 마음으로 멈췄고 그들은 한결같이 앤디와 같이 슬픈 눈으로 나를 쳐다 보았다. 나의 양심은 세상 모든 사람의 얼굴에 앤디의 모습을 심고 거기서 다하지 못한 거부된 참회를 읽는다. 이제야 나는, 나도 하나의 앤디 드레이크가 되어 그가 느꼈을 아픔을 안다.

앤디, 네가 이 글을 읽을 기회는 거의 무에 가깝다. 그러나 나는 시도한다. 옛 친구여! 내가 바라 구하는 것은 그대가 희생으로 우리를 진졌다는 사실을 알아 달라는 것이다. 네가 내 손에 당하던 날 하나님은 그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셨다. 이러한 사실이 너의 그날의 그 못된 기억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거다.

나는 많은 파오를 저지른다. 앤디! 그리고 그리 훌륭한 선생도 아니었어. 그러나 나의 아픔은 다음 두가지 이유로 해서 많이 구제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해.

“보라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자는 사함을 받을 것이요, 나 주가 저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 하리라.”(교성 58:42)

나는 그후로 내가 또 다른 앤디 드레이크를 아프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네가 알아 주었으면 한다. ○





# 청소년

매리온 디. 행스 12사도 보조, 엘레인 캐논

● 청소년은 지적, 영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이들에게는 명상의 시간, 노는 시간, 겨루고 훈련을 쌓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들은 참여하고, 스스로를 발표하며, 지성과 성품과 재능과 지도력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연마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이들은 하나님에 관한 이해를 기르고 이웃에 봉사하며 스스로를 단련시키고 탐구하고 추구하고 작업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은 또한 일하고 견디고 희생하고 사랑해야 한다. 환란을 극복하고 고난을 이기며 유혹을 물리칠 수도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의 장래의 소망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뜻에 따르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성도는 바울이 디모데 사람에게 전한 것처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함”을 믿으며 “은사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함을” 믿는다.

이들은 아울러 믿음만으로는 충분치 않음을 믿는다. 지식만으로는 구원이 가능하지 않다. 높은 원리를 나날의 삶에 이행할 때에야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프로그램은 헛된 것을 지양하고 개인의 요구와 복음의 원리에 부합되도록 사려 깊게 마련되었다. 교회의 프로그램 전반에 참여하는 정도는 어느 때라도 삶에 필요한 지식과 발전을 상으로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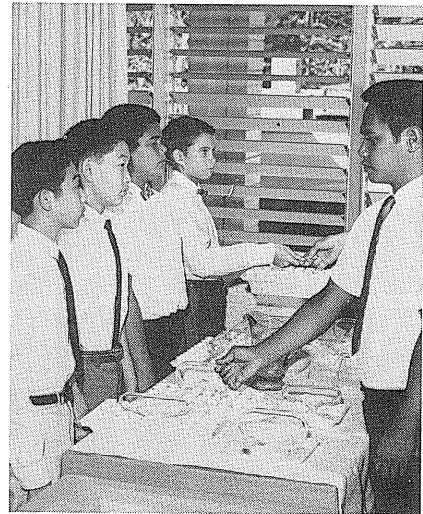
청소년은 사회적으로 성장한다.

아래: 스웨덴 젊은이가 함께 연회에 참석하고 있다.



청소년은 지적으로 성장한다.

왼쪽: 폴리네시아 학생이 실험실에서 공부하고 있다.



청소년은 영적으로 성장한다.

오른쪽: 어린 하와이 성도가 성찬을 전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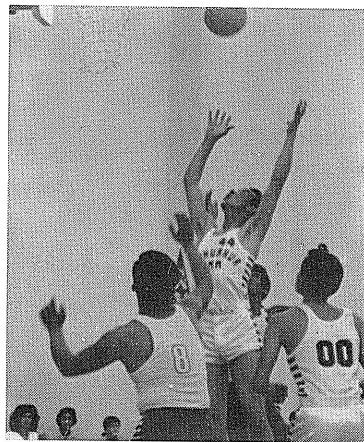
아래: 젊은 선교사가 인디언의 집을 방문한다.



청소년은 육체적으로 성장한다.

왼쪽: 멕시코 소년이 농구를 하고 있다.

아래: 뉴웨이의 청소년이 하이킹을 하고 있다.



어린 소녀는 교회에 참석하고 말일성도의 표준에 따르는 기회를 얻는 것이

# 가장 위대한 특권임을 배운다

마릴린 맥퀸 밀러

● 어떤 주일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남자 아이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공을 차고 노는 것을 보았습니다. 해진 바지에 운동복 상의를 걸친 이들이 한쪽에 한 끝을 놓자 흥분으로 손을 휘두르고 하는 꼴이, 아주 멋진 경기를 하는 듯 했고 그것이 주일만 아니었다면 참으로 훌륭한 체육 활동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들 소년중 몇몇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일성도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교회에 참석한다는—삶의 가장 고귀한 특권을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마 교회를 부담과 속박으로만 생각하였고 특권으로는 생각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유년 주일학교에 다니는 어린 아이였을 때 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던가 우리 가족이 말일성도가 되므로써 지게 된 많은 교회의 임무에 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부모와 함께 인봉 의식을 받을 때 나는 즐겁게 따라 갔고 초등 협회가 펴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나는 지루한 모임을 좋아하지 않았고 모임에서 이야기를 한다던가 금식하고 십일조를 내야하는 일 등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어린 남동생이 태어 났을 때 우리는 비몰몬 마을에 살았습니다.

3층 벽돌집이었던 우리집은 부자와 극빈자의 중간 지점에 묘하게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는 공원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공원이 연결된 부촌의 아이들과 친구가 되고 싶은 일념으로 그 나머지 일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자집 애가 주일날 그 부모와 함께 농장으로 말을 타러 가자고 청해왔을 때 나의 기쁨은 주체하지 못할 만큼 흥분해 있었습니다. 나는 주일학교 결석 같은 것은 염두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엄마가 성찬식에서 내가 성경봉독을 맡았다는 이야기를 상기시켜 주셨을 때 나의 실망은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나는 왜 교회에 가야만 하나? 왜 성찬식에서 성경봉독을 해야 하나? 왜 내 친구들은 교회에 가지 않아도 되고 십일조나 금식이나 기타 말씀을 부탁받는 일 같은 것에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될까? 우리가 회원이 되기 전에는 하고 싶은대로 마음대로 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게 맡겨진 규율이 싫어졌습니다.

어머니는 현명하고 친절하셨습니다. “너는 교회 참

석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가장 위대한 특권의 하나야”라고 간결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 엄마는 애기 동생을 분만하셨습니다. 엄마는 애기를 분만하시고 병이 나서서 여러날을 병원에 입원하여 사경을 헤매셨습니다.

저녁에 우리 세 자매는 현관 입구에서 노을을 보며 귀를 기울여 수백대의 차가 움직이며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버지가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



“나의 어머니는 현명하고 친절하셨습니다.”

다. 아버지가 돌아 오셨을 때 그 모습은 언제나와 같이 피로하고 어두워 보였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엄마의 증세에 대한 아버지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증세는 늘 같았었습니다. 악화되고 있다는...

마침내 다음 주일이 왔습니다. 나는 주저하면서 장화와 바지로 차린 채 아버지가 병원에서 돌아오시기를 창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천천히 걸어 오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가 좀 어떠세요?” 우리는 두려움에 쌓인 채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안하시던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데려 가시는 모양이다” 그리고 이렇게 사태를 설명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엄마는 영영 가실 거예요?” 동생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동생을 안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결코 영영 떠나지는 않는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일성도가 된 것이 다행이지. 우리는 신전에서 가족으로 인봉을 받지 않았니 우리가 언제나 엄마와 함께 살 수 있다는 뜻이란다. 엄마는 우리보다 잠시 먼저 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방문하는 거지만 우리는 늘 함께 살거다. 나는 아버지 눈에 맺히는 눈물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살 수 있고 또 그의 교회에 속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 순간에 나는 엄마의 미소와 정답게 빛나던 눈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말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교회 참석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가장 위대한 특권의 하나야.”

나는 이층으로 올라가 바지와 장화를 벗고 주일날의 차림으로 바꿨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성찬을 들면서 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한 내가 말일성도가 되어 늘 가족과 함께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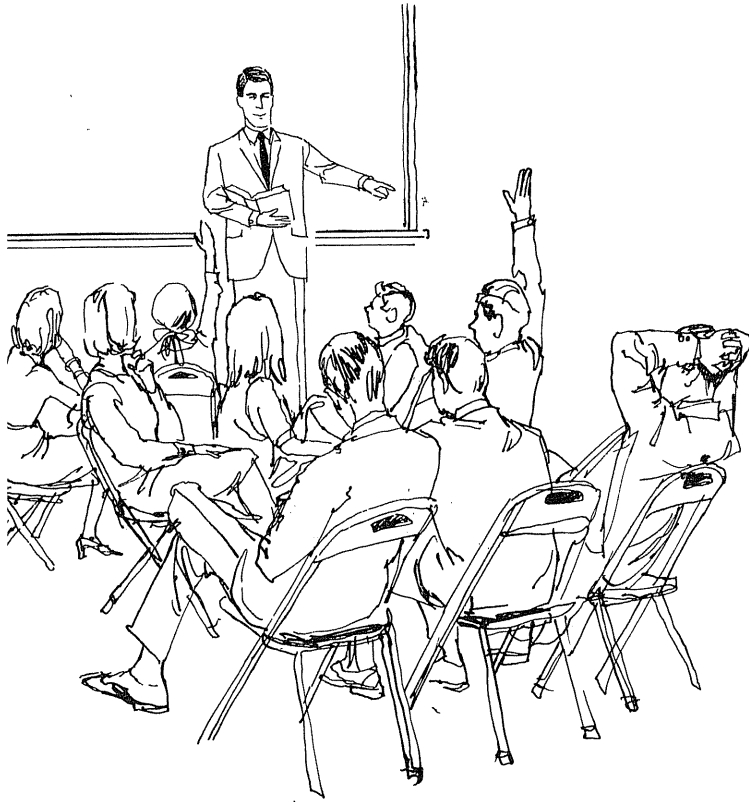
나는 일찌기 그 주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한 일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나는 나의 작은 침대 옆에서 반드시 성찬식에 참석하고 십일조를 바치겠다고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엄마를 우리와 살게 해주신다면 착한 말일성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엄마의 생명을 구해주신 축복,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축복은 나도 말일성도로서 교회에 참석하는 것이 큰 축복임을 알게 된 사실입니다. ○

## 정결 — 아름다운 말

리차드 엘. 이반스

● 개인의 화평과 안정과 존경의 가능성을 지닌 낱말이 있으니 곧 “정결”이란 말입니다. 정결한 손, 정결한 마음, 정결한 가정, 정결한 물, 정결한 공기, 정결한 옷—정결한 뜻, 정결한 도덕—얼마나 품위가 담긴 훌륭한 말입니까! 사람의 마음은 자주 주위 환경에 휩쓸리며 반대로 주변의 분위기가 사람의 뜻에 이끌리기도 합니다. 스스로 정결하겠다는 마음만 굳게 갖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정결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고 벡케이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소녀는 하나님의 은사인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지녔습니다. 이는 햇빛처럼 순결하며 삶 그것 만큼이나 거룩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아름다움이며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압도하는 덕성입니다. 바로 이 아름다움을 우리는 순결이라 합니다”<sup>1</sup> “아름답고 단정하며 순결한 여인이야말로 창조물의 걸작입니다”<sup>2</sup>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 하리라.....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sup>3</sup>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의복과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신전으로의 몸을 믿는 믿음을 엿보이게 하는 것일 수 있게 하라”<sup>4</sup> 고 휴 비. 브라운 전 부대관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너희 중에서 [세상에서] 나와서.....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sup>5</sup> 사악한 것은 정결하지 않습니다. 사악한 것은 불결한 마음과 불결한 도덕과 불결한 태도와 불결한 환경을 조성하게 합니다. “정결함은 신성한 다음으로 으뜸 되는 것입니다”<sup>6</sup> 라고 한 이야기가 단순한 옛 격언이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진리입니다. 사상이나 언어나 의복이며 정결이 모두 이에 속합니다. 정결함에는 “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과 존경이” 따릅니다. 청소년은 정결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이를 수 있는 최상의 영광을 이를 수 있습니다. “정결한 청소년! 천사와 가장 가까운 존재가 아니겠습니까!”<sup>7</sup>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두 정결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

1. 데이비드 오. 벡케이, 인스트락터 1966. 8월호  
2. 같은 책  
3. 갈라디아서 5:16,22  
4. 휴 비. 브라운, 여러분의 결혼 6페이지  
5. 고린도후서 6:17,18  
6. 존 위스리, 복음 사가, 감리교 신자  
7. 대관장단, 1942. 4. 6.



## 질문의 비법

스탠리 엠. 그래보우스키

● 공과 내용을 소개하고 동시에 학생을 시험하는 도구로서 교사는 늘 질문을 중요한 교실의 도구로 사용해 왔다. 훌륭한 교사는 예외없이 질문의 비법에 숙달한 사람이다. 경험이 풍부한 교사는 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끌고 문제의 핵심을 강조하면서 학생들의 사고를 정리하고 견해를 피력하게 하는 질문의 비법을 알고 있다.

학생은 선생이 어떻게 묻고 무엇을 묻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대답을 한다. 먼저 질문의 여러 가지 형태를 살펴보기로 하자.

1. 사실 질문. 이것은 가장 단순한 질문이다. 필요한 자료를 얻고 학생들의 지식의 정도를 알아내는데 사용된다. 대개 이런 질문은 신문기자가 기초 상식으로 알아두어야 하는 “무엇을, 어디서, 누가, 언제”의 방법으로 시작된다. 여기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예수는 누구인가?” “성경이 취급하는 지역은?” “계명이란 무엇인가?”

2. 질문을 부가하므로써 새로운 자료를 소개하게 된다. 간과해 버리기 쉬운 요점을 강조하여 주의를 집중시키게 함은 현명한 일이다. 그런 질문은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또 빠진 것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혹은 “왜 그렇지 않습니까?”

3. 합당한 질문은 옛 것을 점검하고 새 것을 정비하게 한다. “왜” “어떻게”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상례다.

“왜 그리스찬은 주일에 예배를 보느냐?”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의 언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등.

4. 조직적인 질문은 학생으로 하여금 문제를 결정하고 해답을 구하도록 한다. 이러한 질문은 다수의 지지를 얻는 질문의 형태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산상 수훈이 오늘 날에도 부합된다는 논리에 찬성합니까?” 혹은 “안베와 앨버트의 의견을 어떻게 하면 서로 일치하게 할 수 있을까요?”

5.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가능성이 있는” 질문을 던진다. 이런 질문은 대개 “만일” “~이라면” 등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세상의 끝날이 내일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6. 두 세가지 사태를 비교하고 한가지 결론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응시 질문을 던진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해야 할 바는...?” 이라던가 “이것 중에 어떤 것”의 식으로 한다.

질문의 성격을 결정하고 계획하는 일은 일의 반 정도 밖에는 안된다. 그다음 교사는 누구에게 질문을 던질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질문을 할 때 대개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법의 길이 있다.

첫째 : 학생 개인에게가 아니라 전체에게 질문을 한다. 그러면 학생이 자의로 대답해 온다. 이런 방법의 질문은 학생 전체로 하여금 연구하게 하면서도 아무도 궁지로 몰아넣지는 않는다.

둘째 : 직접적인 질문으로 개인을 지명하여 직접 묻는다. 그러니까 먼저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개인의 이름을 지적한다는 순서를 주의하라. 개인의 이름을 마지막에 부름으로서 반전체가 긴장하도록 한다. 말을 안하는 학생을 토론에 참가시키는 데에 알맞는 방법이다.

셋째 : 학생 측에서 질문한 것을 역으로 물어서 반 토론의 주제로 삼아준다는 것이다. 질문이 들어 온 것을 다른 학생이나 반 전체에 돌림으로써 해답을 남이 하게 한다. 다음과 같은 질문의 형태로 할 수도 있다. “인공위성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 볼까요?”

질문을 할 때 교사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다. 질문은 가급적이면 간단 명료해야 한다. 또한 질문은 먼저의 질문이나 해답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학생의 처리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질문의 비법이란 무엇을 묻고 어떻게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를 아는 것 이외에 음성과 표정은 어떻게 하며 태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를 포함한다. 이렇게만 준비한다면 학생들에게 이해와 신뢰를 깊게 심어줄 수 있게 될 것이다.

학생과 교통하는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소가 있으니 곧 “듣는다”는 과정이다. 듣는다는 것은 묻고 이해를 얻는 것 만큼이나 중요한 과정이요, 요소다.

열심히 듣는다는 것은 언어, 감정, 태도, 말 뒤에 담긴

의도, 기대하는 질문 등을 알려고 함을 뜻한다. 학생은 저마다 자기가 사용한 언어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선생은 고개를 끄덕이든가 “그래서”라는 말을 하므로써 듣고 있음을 알린다. 학생의 이야기를 다른 말로 바꾸어 인용한다든가 질문을 종합하여 다시 확인시키므로써 열심히

히 들었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도 있다.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들어야 하느냐를 안다고 해서 교실에서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훌륭하게 준비하는 교사라면 적어도 이곳에 소개한 방법이 크게 도움이 됨을 알 것이다. ○

## 7월 주일학교 성찬식 전주곡

DELMAR H. DICKSON



## 7월 주일학교 성찬식 성문 봉독

장년 주일학교

유년 주일학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태복음 5:8)

“주께서 명하신대로 가서 거행하겠나이다” (니파이일서 3:7)

## 7월 주일학교 연습 찬송

장년 주일학교

유년 주일학교

16장 “참되신 구주여”

특별히 연습이 필요한 곡을 각지부의 지휘자가 선택하여 연습하십시오.

## 7월 주일학교 성구 암송

야고보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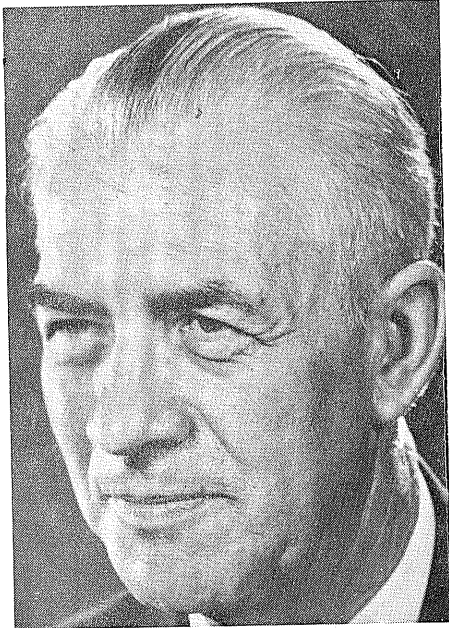
기초 교리반

요한복음 15장 16절

교리와 성약 130편 22절

# 신권의 능력과

마크 이. 피터슨 장로, 12사도 정원회



● 신권은 행복한 가정에 거룩하게 다듬어진 기초가 되며 주님은 합당한 모든 가정에 신권의 축복을 기쁘게 내려 주시려 하십니다.

이제 막 침례를 받은 개종자거나 여러 해 전에 회원이 된 자이거나를 막론하고 일단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를 깨닫고 이를 실제로 생활해 갈때 신권의 축복은 부여되기 시작합니다.

이 축복은 특히 신전 의식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감으로 회복된 이 교회의 교리와 영원한 결혼의 참뜻을 이해할 때에 이 거룩한 의식이 행복한 가정 생활에 기초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기초야 말로 그 위에 이 세상에서의 참 행복과 장차 올 세상에서의 승영을 쌓을 수 있는 터가 되는 것입니다.

신권이 가정에 존재하고 또 모두가 이를 바로 이해하기만 한다면 신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의로움을 갖게 해 줄 것입니다.

복음의 뜻대로 생활할 때 우리는 어김없이 크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며 이들은 이 축복을 우리들 개개인의 가정으로 전달해 주셔서 이로써 우리가 더욱 두터운 가정의 유대를 쌓고 남편과 아내로서의 신성한 관계를 아름답게 계속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신전의 신권 의식은 남자에게나 여자에게 똑같은 축복을 주며 그 정도의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의 결혼만 하더라도 인봉의 의식이 행해졌을 때 이 의식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동등하게 처리됩니다.

복음을 통하여 베풀어지는 순종의 성약도 남녀 모두에게 동등한 비중으로 역사됩니다. 그 정도에 차이란 있을 수 없으며 교회가 두개의 표준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축복의 약속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을 내려 주시겠다고 하시고 그 축복을 나누어 어떤 것은 남자에게만 주시고 또 어떤 것은 여자에게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젊은 부부가 신전 결혼 의식을 통하여 부부로 맺어진 다음 혼인의 성약을 나눈다면 똑같은 거룩한 축복의 약속을 얻습니다

이들 젊은 부부가 신권을 가정에 받아들인다면 도대체 그 신권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신권이 그 집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와 그 집을 축복하게 하며 그 능력으로 집과 가족을 보호하고 거룩하게 하며 아픈 사람이 생

기면 낮게 해 주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영감의 가르침을 전하며 그리하여 그 집을 안식처가 되게 하고 화평의 성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이렇게 정리되면 그곳은 식구들이 모여 단순히 먹고 쉬고 자는 그런 의미만을 지니지는 않습니다.

가족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영원을 사는 그런 삶이 비롯되는 것입니다.

자 잠시 동안 이런 문제를 놓고 생각해 봅시다.

남편과 아내는 영원한 인봉을 받고 결속되었다. 무엇의 힘으로? 신권으로.

자녀는 그 부모에게 생명과 사망과 부활이 함께 인봉된다. 어린자녀가 병이 나면 어떤 권세로 이 아이를 축복하는가? 물론 신권의 능력이다.

사망이 가족의 일원을 칠때에 어떤 힘이 사랑하는 가족간의 유대를 영원으로 연결해 주는가? 물론 신권의 능력이다.

우리가 복음의 생활을 할때 신권의 권세는 우리들 삶의 작은 것까지도 메만져 줍니다.

이러한 가정의 규율은 거룩한 중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신권의 표준과 일치합니다.

그리하여 가정은 모든 가족이 신권의 뜻에 따라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즐기며 화기 애애하게 사는 안식처가 됩니다

아이들은 모두 부드러운 줄기 같아서 신권으로 인도하는 의로움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순결의 힘과 죄를 멀리하는 뜻이 신권의 빛과 조화될 것입니다.

# 축복

[1969년 교회 연차대회 상호 부조회 역원회 대회에서 하신 말씀]

가족이 지혜의 말씀을 지키고 순결로 도덕을 지키는 방패를 삼고 정직을 변하지 않는 표준으로 삼되 모두를 신권의 뜻대로 행합니다.

이러한 가정에는 저절로 영적인 요소가 스며 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참된 기쁨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집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므로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간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그의 기쁨과 화평과 번영과 보람과 보호와 예지의 빛이 충만하게 되어 우리의 가슴을 채워 줄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차차 자라면서 신권의 축복을 받으며 세세토록 하나님의 축복은 더 커져서 우리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고 특별한 백성이 되어 우리를 어둠에서 광명으로 인도하신 분을 영원토록 찬양할 것입니다(벧전 2:9 참조)

이렇거든 신권을 모든 성도의 가정에 두어 평생을 두고 존경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인류에게 주어졌듯이 신권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런 권능과 신권의 영향력을 과연 우리 집에도 받아 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편되는 사람은 과연 그 신권을 존경하고 나아가 그 신권의 임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들은 또한 합당한 의식을 통하여 그 신권을 얻고 얻은 다음에는 이를 존경하고 그 임무에 충실하려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어머니와 아내와 딸은 함

께 주어진 아빠와 남편과 형제에게 거룩한 신권과 그 능력을 존경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어머니와 아내와 딸은 신권을 존경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신권이 가정에서 합당하게 역사될 때 모든 어머니와 아내와 딸이 신권의 뜻으로 주어지는 화평의 축복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권의 뜻이 바로 이해되고 합당한 존경을 받게 되면 그 영향력이 주변을 둘러싸며 이로써 가족의 분쟁이나 다툼이 일지 아니하고 파탄이나 분쟁이 닥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직 기쁨과 조화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과연 평화의 사자가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9:12 참조) 신권은 그 분의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신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반차를 이어 받은 것이 아닙니까? (교성 107:3 참조)

그러할진대 우리 모두 신권을 우리들의 가정으로 불러 들이며 그것이 화평과 행복의 근원이 됨을 인식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매 여러분! 남편을 도와 저들이 주어진 부름의 뜻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협력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들을 가르치되 신권을 받을 날을 손뼉아 기다리게 하며 이를 이해하여 존경하고 그의 의미 심장함을 깨닫게 하도록 하십시오.

저들이 과연 여러분이 원하는 신권의 사자가 되도록 잘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평

화의 근원은 오직 한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들이 의식을 통하여 얻은 권세는 화평의 열쇠입니다.

자매 여러분! 바로 그 열쇠로 여러분을 위하여 마련된 하늘 축복의 문을 열도록 하되 하나님의 신권을 존경하고 남편을 존경하며 저들이 충실하게 임무를 다 하도록 격려하고 집에서나 교회에서 성실하게 생활하도록 협조하는 가운데 역사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사람이 신권을 존경하지 않고 멋대로 행동하는 것은 참으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죄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부정직한 행동을 유발하고 마침내는 교회로부터 배도해 나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신권이 존재하지 않을 때 가정에서는 야수와 같은 잔인함과 아내에 대한 불손함과 아버지나 남편에 대한 모독과 “왕은 잘못을 범하지 않는다”는 식의 태도를 교집하는 아버지의 횡포로 혼란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중요함을 과시하기 위하여 때로는 공공연한 자리에서 까지 아내나 자녀를 경멸하는데 사실상 이러한 사람들은 스스로 이등 인간이라는 낙인을 찍는 것이며 열등 시민임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은 불화와 근심을 가져오게 하며 심한 경우 이혼이라는 파탄까지도 가져 오는 수가 있습니다.

불결한 것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

어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친절한 사람도 왕국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겸손과 성실로써 어린 아이를 사랑하시고 모든 여인, 죄를 진 여인까지 존경하셨던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할 때 비로써 우리는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는 평화의 사자이시며 그의 평화는 가정의 평화도 뜻합니다. 주는 서로 친절로 대하라고 하셨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주는 용서와 관용과 인내와 오래 참음과 온갖 가정에서의 미덕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자세를 가다듬지 않고서 과연 천국에 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합당치 않은 것을 버릇처럼 되풀이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자행하는 형제들은 이기심이나 근시안적인 사고 방식으로 인하여 이러한 과오를 빚으며 스스로 지니고 있는 신권을 경멸하고 존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은밀한 가운데 어기고 공공연하게 알려지지 않게 하였다고 해서 그 범법의 정도가 결코 가벼워 지지는 않습니다.

공공연 자리에서는 예의바르게 행동하나 가정에 돌아가서는 그렇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가장 위선적인 방법으로 신권을 경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선을 정죄하십니다

사람은 그 스스로가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고 아껴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행실을 보고 자기의 아들이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여인을 존경함은 신권을 보이지 않게 존경하는 길입니다. 신권이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하신 반차인 까닭에 신권의 반차에 속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속성을 닮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의 성구를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곧 신권의 권능은 하늘의 권능과 굳게 매어져 있어 뗄 수도 없나니 하늘의 권능은 의의 원칙이 아니고서는 지배되거나 운용될 수 없다 함이니라.

이 권능은 우리에게 수여되는 것이니 이 또한 사실이니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숨기려 하거나 우리의 교만과 헛된 야망을 채우며 조금이라도 불의하게 인간의 자녀를 지배하며 통어하며 강압하려 하면 보라 여러 하늘은 스스로 물러가며 주의 영은 슬퍼하시나니 주의 영이 물러가면 그 사람의 신권 곧 권위는 아멘이니라(교성 121: 36-37)

하늘의 권세를 인정하고 참 뜻으로 부모와 자식이 함께 신권을 존중하면 신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말로 다할 수 없는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며 영원한 유대를 결속시켜 줄 것입니다.

가정은 어떤 의미에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부이기도 같습니다. 교회의 프로그램이 신권의 관리하에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사랑과 의로움 가운데 역사되고 또한 사랑과 의로움이 늘 그 가정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복음이 세상 어느 곳에서 보다 가장 효율적으로 가르쳐지며 안온하고 따뜻한 가운데 가르쳐집니다. 이러

한 분위기 속에서 자녀는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기뻐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이 복음을 기뻐할 때 그 뜻에 순종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신권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가정도 있는 줄 압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비 회원인 경우도 있고 남편이나 부친이 세상을 떠나 안계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없이 재혼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사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에서 신권의 기쁨에 접할 수는 없습니다.

충실한 아내나 어머니는 그들의 자녀에게 기도하고 믿으며 복음에 따라 살도록 가르칩니다.

자매님은 누구나 와드의 아버지가 되시는 감독님을 불러 필요한 의식을 부탁 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정복음 교육 교사의 끊임 없는 공식 비공식의 방문으로 가까운 유대 의식을 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제들이 필요한 때에 축복을 간구해 줍니다. 조언을 해주거나 충고를 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회원의 가정으로서 거룩하신 신권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 주실 때 도구로 쓰시는 신권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신권의 목적도 아울러 기억합니다. 신권은 우리를 축복하고 인도하며 성령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임명을 받은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거하시도록 해 줍니다.

○





어린 아이에게는 부모의 언행이  
가장 강렬한 본보기가 된다

## “내가 하는대로”

문론, 설리 팩스만

● 올겐 연주자로도 유명했던 밀림의 인술가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본보기란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을 수 있는 유일의 것이다.” 이제 위의 이야기를 부모에게 적용하여 브리검 영 대학교 대학원 학생들이 「어린이의 발전」이란 연구를 정리한 재미있는 실험 결과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 실험의 결과로 나타난 어린이의 성향은 어른들이 이야기로 전하는 가르침 보다는 행동으로 보이는 모범을 더욱 본받으려 한다는 것이다. 이곳 연구생들은 유치원 원생을 샘플로 하여 이들이 선생의 행동에 의하여 영향을 더 많이 받았는가 아니면 이야기로 전하는 가르침에 의하여 영향을 더 받았는가를 조사하였다.

교사가 사탕 그릇 두개를 어린 아이들 앞에 있는 탁자 위에 올려 놓았다. 그렇게 한 다음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틈틈이 한 그릇에서 사탕을 꺼내어 입에 넣었다가는 즉시 벨어서 쓰레기 통으로 던져 버린다. 이런 동작을 되풀이 하면서 아주 침착한 음성으로, “흠! 거 참 맛있는 걸. 입

에 침이 저절로 고인단 말이야!” 라고 계속한다.

그러나 다른 그릇에서 사탕을 꺼낼 때는 “허 그것참 고약하다. 뭐 맛이 이래. 전혀 맛이 없는 걸.” 이렇게 말하면서 얼굴까지 찡그린다. 그러나 이 두번째 그릇에서 사탕을 꺼내면 꼭 입에서 굴리다가 삼켜 버린다. 아이들은 이러한 선생의 모습을 모두 관찰했다. 공부시간이 끝난 다음 교사는 두 그릇에 든 사탕을 반 아이들에게 나누어 준다. 거의 예외 없이 선생이 맛이 고약하다고 설명한 두번째 그릇에 담긴 사탕을 받으려고 아이들은 손을 내밀었지만 선생이 맛이 있다고 말을 했으면서도 먹지 않고 버린 첫번째 그릇에 담긴 사탕은 모두 거절한 것이다.

이 연구 조사는 많은 부모를 부끄럽게 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뉘우치게도 한 것이다. 어린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겸양으로 봉사하는 것이 큰 축복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실제로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는 이를 피하려 하고 공공연하게 교회의 처사에 불평을 토로하면 틈틈이 “첫번째 그



부모들이 읽는 것을 즐긴다면 어린 아이들도 그런 습관이 붙게 될 것입니다.

릇”의 결과를 초래하게 하고 만다. 교회 역원 앞에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정중하게” 한다면 어린 아이들은 곧 존경과 감사의 태도를 따르게 된다. 그러나 부모가 사사로이 자기가 얼마전에 칭찬했던 바로 그 역원을 못마땅하게 이야기 한다면 아이들이 본받았던 감사와 존경의 성품은 쉽게 쓰레기통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면 부모는 어떤 방법으로 일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을까?

부모가 자기들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할 때 참으로 열심히 일했노라고 뽐내는가? 그러한 자랑은 옅은 장막으로 위장한 불평밖에는 안된다. 자녀들에게 자기들이 어렸을 때 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다행하냐는……. 결국은 일하지 않는 것이 축복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교사의 연구에 나타났듯이 부모는 자주 쓰레기 통에 던져버리는 반응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일에 접근하게 하는 긍정적인 방법은 열의와 기쁨을 갖고 일하는 것이며 만족은 스스로 느끼면

서 만족의 확증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일부 부모들은 교회에서의 봉사나 개인의 나날의 작업이 어려운 고행 같다는 인상을 심어 주려는 것일까? 일 자체가 희생이라는 생각을 갖게 해 주려는 것일까? 부모의 태도 및 행동의 본보기는 커다란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부모가 입으로만 봉사할 때의 결과는?

몇년전 참으로 반갑지 않은 일이 즉결 재판에 걸렸다. 십대 소녀가 줌도둑으로 잡혀 온 것인데 묘하게도 그 소녀의 모친도 상점에서 줌도둑질을 하다가 붙들린 일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 딸년이 전혀 내 행실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전 아주 나쁜 여자는 아닙니다. 저는 좋은 엄마가 되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교회에도 나가고 함께 가족기도도 갖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조관은 멍하고 듣다가 머리를 흔들면서 후에 이렇게 말했다. “아마 우리도 모토를 바꾸어야겠습니다.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족은 흠치기도 함께 한다고.” 이러한 현실이 자극적이면 자극적일수록 우리는 그만큼 신중하게 우리가 복음 원리에 헌신하노라고 입으로 말하는 것에 비해서 실제로 얼마만큼 행동하고 있느냐를 검토해 보고 살펴봐야겠다. 그 소녀의 어머니가 강조한 교회 참석과 가족 기도의 이야기는 사실이였다. 그러나 그의 행동이 교회가 대표하는 덕성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결과를 낳게하고 말았다.

자식에게 의식적으로 악의 씨를 심게하거나 나쁜 모범을 보이려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은연중에 보여지는 부모의 약점은 의외로 강한 메시지를 자녀에게 전하고 마는 것이다.

부모가 도덕적인 순결에 관한 교훈을 전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그러나 난잡한 이야기를 크게 떠들어 대거나 즐거운듯이 서로 나눈다면 그의 자녀는 마치 사탕이 형편 없다고 말하면서 모두 삼켜버린 선생에게 보였던 반응과 행동을 부모 앞에게 재연할 것이다.

많은 부모가 “왜 우리집 아이들은 도대체 책을 읽으려 하지 않을까?” 하고 불평을 한다. 부모가 먼저 즐겁게 독서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좋은 책을 읽음으로서 기쁨과 만족, 보람 등을 얻는다고 가르치면서 실제로 자기 독서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여 줄 때 효과는 기대 이상일 것이다.

교회 일, 좋은 음악, 문학, 예술, 연극, 성경, 의욕적인 전전한 오락—복음의 생활—을 즐기는 부모는 그 본보기로 자녀들이 필요로 하는 가장 절실한 요소를 심어주며 선한 영향력을 비쳐 줄 것이다.

# 나는 참 용기를 보았다!

진 하트

● 가슴의 뜨거운 고통은 차거운 공포가 되어 나의 마음을 뚫고 얼어붙게 하였다. 나는 온통 캄캄하고 황량하고 몹시도 외롭게 밤을 맞은 채 내가 암에 걸렸을 경우 나의 실정이 어떨것느냐를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

여러날과 여러밤을 두려움으로 혹은 뜬 눈으로 보내면서 나는 도대체 죽는다는 게 무엇일가로 몰몰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나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자극한 것은 일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다. 나는 비로소 그렉의 용기의 깊이와 폭을 지금에야 실감하게 된 것이다.

그렉은 당시 17세의 키가 훗칠하고 잘 생긴 육상 선수였다. 오년여 전에 그는 그 가문의 전통에 따라 1,500m 육상 선수가 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그는 운동 신경이 별로 예민하지 못했으며 나는 그의 그러한 결심을 딱하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나는 뽀박질이 그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필생의 사업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언제나 힘든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였고 또 어려운 일에만 도전하는 것 같았다. 조금도 중단하는 법이 없이 그는 더욱 힘들여 일을 했다.

뽀박질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남들처럼 적기에 적당한 량의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년 사시를 두고 그는 달리기 연습을 하였다. 그는 뽀박질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활동이나 음식은 철저하게 멀리했다. 그는 그의 조부의 가축 농장에서 여름을 보냈다. 들에서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하고 나서는 그가 심은 넓은 채소 밭을 돌보고 그 다음에는 근처 언덕에 까지 달리를 하는 것이었다.

보는 사람은 다 그토록 심한 운동과 노동을 하는 것이 과하다고 그를 말렸지만 정작 당사자는 막무가내

였다. 그는 완전 주의자였으며 자기가 하는 일로 달리기엔 필요한 힘과 스테미너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개학이 되어 일단 농장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어딘가 불편해 보였고 몹시 피곤해 보였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류마티스 증세의 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심장의 상태에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 왔었다. 우리는 우선 그를 병원에 보내어 완전한 종합 진단을 받게 하였다. 진단 결과 그는 신체의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모두 그가 한 여름을 고된 작업으로 보낸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선입견이 그를 피곤하게 보이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았다.

크로스-칸트리 경기가 시작되면서 그는 그의 몸을 혹사하며 달리기엔 몰두했다. 매일 학교 수업이 끝나면 그는 곧 집으로 돌아와 현우으로 갈아 입고 식당 앞에 걸터앉아 간단하게 하루에 있었던 일을 지꺼리며 무거운 등산화 끈을 풀라 맨 다음에는 힘과 스테미너를 조절하겠다고 매일 산길을 뒤풀 하였다. 산에는 달리기 만으로는 다 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었다. 그는 자연을 사랑했고 산에 있는 동안 달리기로 단련하는 자기 몸의 정신력을 다듬었을 것이다.

지난 10월 그렉은 이상하게 피로의 빛을 보이며 왼쪽 다리에 통증이 온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는 어떻게 해서 왼쪽 다리를 다치게 되었는가를 혼자서 연구하였다. 어쨌든 전에는 근육이 강직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내게 육상 선수라면 근육 강직을 거의 다 경험하게 마련이고 이를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들은 않는 것 같았다. 그날은 내가 뽀박질을 하지 말라고 그를 말렸고 이상스럽게도 그는 나의 권고에 응하였다.

며칠 후에 학교에 중요한 육상 경기 일정이 발표되

# 선한 삶

선교부장 서 헌 보



● 이번 달에는 “선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토론하고자 합니다. 현대는 세상 모든 곳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시대입니다. 폭동과 유혈의 공포가 우리의 가족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하고 안전한 삶을 구하여 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으며 우리는 그리스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업적을 살펴봄으로써 그의 빛이 세상의 고난을 비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은 이 지상에 있었던 가장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영생의 길을 열어 주었으며 그는 우리들에게 선한 삶의 원리를 가르치셨고 봉사를 통하여 행복할 수 있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던 못하던간에 우리는 모두 행복하고 온전한 삶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주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완전한 삶을 쟁취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선생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되고 행복하게 하는 그의 가르침을 받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알아보겠다는 열의를 가져야 합니다. 아울러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이를 알아 간직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께서 분부하신 대로 경전의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는 훌륭한 책은 탈메지의 예수 그리스도를 필두로 많이 있습니다.

선한 삶을 사는 방법을 설명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상고해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14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었나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예수는 여기서 우리가 삶의 황금율을 지키면 영원한 삶의 길로 들어 갈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 황금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우리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를 우리가 원합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에게 이와같이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율대로 사는 것이겠습니까. 아울러 여러분은 남에게 선을 행하고 친절을 베푸는 가운데 행복과 만족스러움을 느껴본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우리의 자유 의지에 맡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상고해 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는 우리가 그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또하나의 목표가 있는 것이니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살

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시겠다고 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선한 삶에 대하여 그밖에 그리스도의 삶에 나타난 교훈은 무엇 일까요? 그리스도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생애가 행함과 실천의 생애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에게 뒤로 물러 앉아 기다리지 말고 실행하라고 가르칩니다. 삶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쟁취하려면 우리는 나아가 행동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통하여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같은 장에서 예수님은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가치를 아십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소금이 맛을 잃어 쓸모 없는 것이 되지 않게 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나는 한국에서도 회원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으면 번성하여 그만 자기를 축복하신 분을 잊고 세상의 일이 너무 분주하여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에서 맡고 있는 직분이나 직책에서 해임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며 이들의 훌륭한 삶은 고난과 슬픔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모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생명의 구세주를 상실할 수 있는 길이 참 많습니다. 계명을 어긴다면 악행을 한다면 등등의 일입니다. 결국 우리의 목적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또 우리에게 곤경을 갖게 해 주는 것도 다 의의 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하고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이튿날의 교회 회원이 되지 말고 믿는 것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교회가 가르치는 모두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와 직분이 얼마나 값사한 것입니까?

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님이 12사도의 부름을 받고 봉사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행복과 선한 삶의 내용을 들어봅시다. 바쁜 개인의 사정으로 교회의 직책을 버리려는 사람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연구나 사업 때문에 직책을 버립니다. 결국 이들은 세상적인 분야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만 영적인, 도덕적인 면에서는 극히 작은 존재가 되고 맙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비극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적으로는 높은 자리에 앉지만 이들의 가정 생활은 극히 절망적인 것이어서 슬픔과 고난을 맛보게 됩니다. 교회의 생활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최상의 방편입니다. 교회에 머물러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또한 최상의 방편입니다. 사람이 교회의 돌레를 벗어났면 벌을 받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스스로 불행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며 아무도 불행을 원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상의 말씀이 바로 사도가 되신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들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기를 바라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삼아 이 세상에서는 물론 영원토록 행복하고 선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 하나님의 용감한 종 엘마

남부지방부장 배 영 천

●“모든 사람은 각자가 선택하여 복종할 만큼 보답을 받게 된다.”

현재와 같은 순간은 두번 다시 없는 것입니다. 결심이 세로워졌을 때에 그 결심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후에 그 결심에서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결심은 세상의 급류에 의해 사라지거나 잃어지거나 멸망하든지 또는 태만의 진흙구덩이로 빠져버리고 말것입니다.

모사이야서 29장과 엘마서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를 추려서 다음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선량한 모사이야 왕이 늙게 되자 누가 그의 자리를 계승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아들의 한명이 당연히 왕이 되어야 했으며 백성들은 특히 그의 아들 아론이 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이 천거를 듣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보다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의 다른 세 형제도 이와 똑같이 생각하였으며 그 누구도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다.

그 이유는 그들이 복음에 개종하게 되었을 때에 철저하게 개종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의 영이 그들에게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단 한가지 일만하기를 원하였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왕위를 포기하는 것도 그렇게 큰 희생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고로 모사이야 왕은 대단히 현명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는 백성에게 새로운 왕을 갖는 대신에 판사로서 백성들을 다스릴 선량한 사람들을 뽑으면 어떠냐고 말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일정한 시기에 다같이 모여 자기들을 다스려 주기 원하는 사람들을 선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곧 이 제안을 받아 선거를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나라의 재판사로서 뽑은 사람은 대제사의 아들 엘마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다른 책임들이 엘마에게 주어졌습니다. 엘마는 재판사로서 선출되는 외에 이제는 늙은 자기 아버지에게 의해 교회의 대제사장에 성임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엘마는 나라의 정치적인 최고의 지위를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의 예언자이며 영적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쓴 일부분의 기록은 물론경 중에서 매우 가치있는 부분의 되어있습니다.

새로운 민주정치 하에서 모든 일은 잠시동안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때에 한 악한 사람이 일어나서 평화를 방해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허였으며 강하고 교활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몸이 크고 웃을 잘 입고 아침으로서 친구를 곧 만들고 극히 똑똑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는 거짓말도 살인도 상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지 주의를 집중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니허는 사람들 사이로 돌아다니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일을 안해도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아무런 두려움이나 고통이 없이 즐길 수 있는대로 즐기면서 살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니허는 자기의 추종자들이 점점 늘어감에 따라서 더 대

담해지고 점점 거만해 졌으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하였습니다.

그는 어느날 제이라헤물라의 거리를 내려가고 있었을 때에 엘마의 아버지의 친구였던 진리의 투사인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기드온은 니허가 거짓을 가르친다고 꾸짖었습니다. 니허는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해야될 존경의 태도를 보이지도 않고 칼을 뽑아 그 자리에서 기드온을 죽였습니다.

이 무서운 범죄로 말미암아 그는 판사인 엘마 앞에 붙잡혀 왔습니다. 재판후에 그는 살인죄로 판명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기 범죄에 대해서 생명으로 지불하였지만 많은 악한 교리를 널리 퍼지게 함으로서 수천의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큰 이기심 때문에 친구들로하여금 자기를 왕으로 만들게 하였으며 다음에는 자기를 왕으로 인식시키기 위해 니파이족에게 전쟁을 걸었습니다.

대제사이며 재판사이며 거룩한 기록의 보관자인 엘마는 이제 백성들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전쟁에서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무서운 싸움이 계속되어 수천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애물라씨의 추종자들에게 레이맨족의 군대가 합쳐졌습니다. 최후의 접전중에 엘마는 애물리씨와 단독으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절망적인 상태였으나 엘마는 싸우면서 주를 불렀으며 영감받은 힘으로서 악한 애물리씨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니파이족은 수천의 남자를 잃었으며 많은 여자와 아이들은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여기에 부가하여 짓밟히고 가족들이 죽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그들은 결혼해졌으며 주를 기억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래기억 하지는 않았습다. 상태가 점점 좋아지자 그들은 쾌락에 시간을 더 많이 소비하고 주를 경배하는 데에는 시간을 조금밖에 쓰지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점 친절하지않게되고 더 이기적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 직분중 그 어느하나를 버려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엘마는 자기의 제일의 책임은 의를 전파하는 것이며 백성들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찼을 때에는 세상의 모든 율법이라도 그들을 선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신임할만한 사람들을 지명하여 재판사로서의 자기의 지위를 맡겼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직분을 버리고 모든 시간을 백성들 중에서 선교사업을 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희생은 대단히 컸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느 것 보다 주와 그의 사업을 사랑하는 선량한 사람들은 이 일을 추진시키기 위해 즐겨 희생 할려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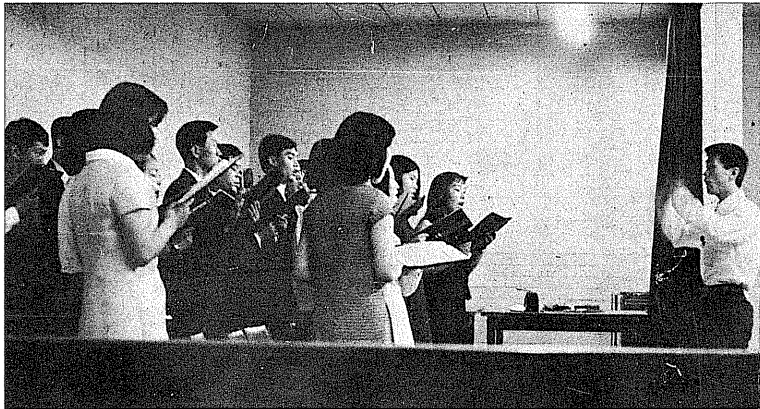
여러분은 엘마가 자기의 전시간을 백성중에서 선교사업을 하는데 쓰기 위해 재판사의 직을 버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또 한사람의 엘마가 되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있습니까?

# 1970년 중앙 지방부 대회 제 2 차



↑패튼 형제 내의를 소개하는 선교부장

올해에 두번째이며 1969-1970년도의 3/4분기 중앙 지방부 대회가 지난 5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서울 동부 지부에서 있었다. 토요일 4시 전체 역원회로 시작된 지방대회의 모임은 지도자에게 필요한 영적인 준비에 관해서 선교부장님의 말씀이 있었고 분반해서 각기 소속된 보조 조직의 모임별로 지시와 토론이 있었다.



↑특별 순서로 합창을 하고 있는 동부지부 합창단

17일 오전 8시 30분 부터 있었던 주일의 모임은 각 지부의 지부장단급 이상이 대상이었던 전체 지부장단회로 시작되었다. 중앙 지방부 산하 12개 지부 및 지역별로 자기 지부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특히 인천지부의 두번째의 물문경 읽기는 각 지부로 하여금 경전을 읽기에 부채질을 하는 좋은 모범으로 소개되었다.

10시, 이번 지방대회에서 모든 회원이 함께 지도자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오전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으로 해서 인지 시작전에 500여 모든 좌석이 매워진 가운데 “진리 내 맘 비쳐 주니”의 찬송이 울려 퍼졌다. 총회 벽두, 회원들은 맛고 보내는 역원에 대한 지지에서 선교부장 제이보좌 데이 형제의 출국으로 위티커 형제를, 선교부 계보담당자에 박 재암 형제와 그의 보좌로 김 사원 형제를, 이 정현 형제의 도미로 공석중인 지방부장단 제 2보좌에 한 인상 형제를, 김 산 형제를 계보담당 평의원에, 윤 덕순 형제를 건축 및 재정담당 평의원에, 지방부 보조 서기에 구 본동 형제를 각각 지지하였고 이번 대회를 맞아 장로 신권을 받게 된 김 정웅(서부), 김 낙규(서부), 김 진정(동부), 임 규선(신촌) 형제에 대한 지지도 함께 있었다.



↑말씀하는 선교부장



↑말씀하는 선교부장

수원에서 5명, 춘천에서 16명, 인천에서 22명 등이 참석한 600여 중앙 지방부 산하의 성도들은 한 인상, 박 재암, 데이, 위티커, 차 중환 지방부장, 서 현보 선교부장님의 영적인 말씀이 - 축복받은 날에 한 곳에 할 수 있음과 말일에 우리에게 지워진 사명감으로 해서 웃김을 여미고 자세를 고쳐 갖게 하는 지도자의 말씀이었다. 차 지방부장님은 “신앙인에게 기도를 빼면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없다”며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늘에 계신 분과의 교통을 강조 했었다. 선교부장님은 “이론이 없거나 행동이 없는 실천은 신앙인의 자세에서 어긋난다”면서 “어느 곳에서나 자기 양심에 꺼리낌 없는 행동인으로서의 자기를 가다듬자”고 했었다.



↑춘천지역에서 참석한 성도들

이번 대회에서는 번역 출판부와 그외의 몇곳의 건축을 위해 지난 5월 9일 내한한 페튼 형제 부부도 함께 소개되었다. 건축 책임자로서 2년간 한국에 있게되는 그는 태평양의 여러 나라에서 30여년간 건축업에 종사해 온 1남 3녀 아버지이다.

올해에 두번째 지방대회는 “화평과 안식의 시간”을 갖기 위해 기도 생활을 다짐하는 찬송으로 막을 내렸다. 성도들은 오후 6시부터 각 지부에서 지부별 성찬식을 가졌다.

↓지방대회 전경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 한국 선교부 예하 각지부 주소 (1970년 6월 1일 현재)

**한국 선교부** 서울 종로구 청운동7 전화 (73)3995

**중앙 지방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210호

**늑번지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응암동 61-56 전화 (38)4820

**동대문지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02-4 전화 (92)1005

**동부지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02-4 전화 (92)1005

**삼청지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5 전화 (72)3596

**서부지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58-1 전화 (73)1208

**성북지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송천동 518-18 전화 (92)0744

**수원지역**  
경기도 수원시 매교동 94-3

**신촌지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2-10 전화 (32)4279

**영등포지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대방동 360 전화 (69)4663

**인천지부**  
경기도 인천시 우체국 사서함 52호 전화 (2)9852

**청운지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 전화 (73)3995

**춘천지역**  
강원도 춘천시 우체국 사서함 9호 전화 3119

**남부 지방부** 부산시 우체국 사서함 292호

**대구지부**  
경북 대구시 삼덕동 2가 24 전화 (2)6659

**동구지부**  
부산시 동구 수정동 658-10 전화 (4)9769

**동래지역**  
부산시 동래구 장전동 642-88 전화 (5)1180

**마산지역**  
경남 마산시 우체국 사서함 40호 전화 4961

**부산지부**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3가 95 전화 (4)7071

**호남 지방부** 전남 광주시 우체국 사서함 29호

**광주지부**  
전남 광주시 우체국 사서함 29호 전화 (2) 2692

**군산지역**  
전북 군산시 우체국 사서함 40호 전화 1956

**대전지부**  
충남 대전시 우체국 사서함 38호 전화 (2)62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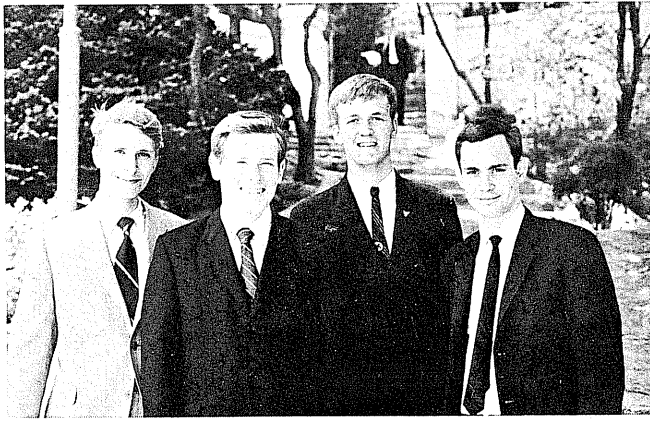
**목포지역**  
전남 목포시 우체국 사서함 7호 전화 (2)2065

**전주지부**  
전북 전주시 우체국 사서함 38호 전화 2819

## 새로운 회원을 소개합니다

월일	성명	나이	성별	지부	월일	성명	나이	성별	지부	월일	성명	나이	성별	지부
4/25	김선무	8	남	대전	5/2	황병열	22	남	동대문	5/5	최영숙	21	여	부산
"	김선기	12	남	대전	"	구인회	23	여	동대문	"	장우전	21	여	부산
"	김미선	9	여	대전	"	김순진	17	남	동대문	5/9	유재윤	17	남	춘천
"	강경모	24	여	대전	"	김기훈	23	여	동대문	"	유재정	16	남	춘천
"	고정희	38	여	대전	"	이신욱	22	여	늑번	"	서완석	24	남	군산
"	강순권	30	남	대전	"	원인숙	17	여	늑번	"	추경실	19	여	군산
5/2	최미자	15	여	인천	"	박옥희	20	여	수원	"	홍성대	17	남	군산
"	윤진숙	14	여	인천	"	이희숙	19	여	광주	"	함현숙	19	여	군산
"	최상혁	—	남	인천	"	강미순	14	여	광주	"	김이철	21	남	군산
"	정광순	—	남	인천	"	양승자	13	여	광주	5/13	이현숙	23	여	군산
"	정유진	54	남	인천	"	조관형	18	남	광주	5/16	임홍석	36	남	진해
"	이현숙	16	여	인천	"	김영식	16	남	광주	"	조정자	19	여	광주
"	김신일	33	남	서부	"	김귀원	20	여	부산	"	신기화	18	여	광주
"	김정자	29	여	서부	"	조수야	31	여	부산	"	정향숙	18	여	광주
"	박종래	20	남	성북	"	배현식	40	남	부산	"	박정혜	19	여	광주
"	김복영	16	남	성북	"	임우희	15	여	부산	"	김양기	18	여	광주
"	홍순희	18	여	성북	"	임정화	18	여	부산	"	박연자	18	여	광주
"	이강규	22	남	청운	"	송심호	32	남	부산	"	이길웅	51	남	광주
"	구윤성	11	남	청운	"	김현진	32	여	동대문	"	이정신	22	여	목포
"	이우영	8	여	청운	"	이종연	36	남	동대문	"	최정미	22	여	목포
"	송훈길	17	남	청운	"	강혜순	36	여	동대문	"	김순임	29	여	목포
"	김예자	20	여	청운	5/4	박병자	18	남	대전					
"	김홍준	19	남	청운	"	이금	11	여	대전					

이상 6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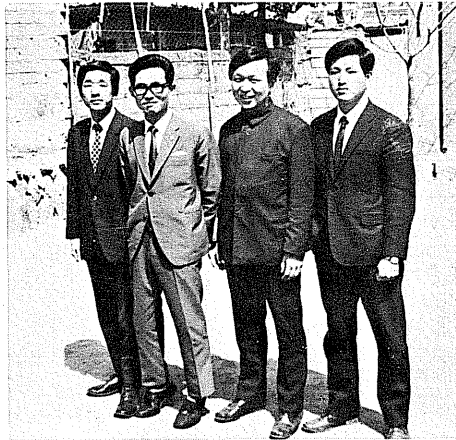


### 수원지역 개척

경기도 도청 소재지인 수원에 지역이 개척되었다. 5월 12일 텡기, 웬, 스카트, 라이먼, 장로 등(사진의 우로부터) 4명의 선교사가 출발하여 개척하고 있는데 수원과 오산 근역을 담당하게 되는 이들은 출장 선교를 하여 지난 5월 2일 침례 회원을 갖는 열의를 보였다. 매교동 94번지에 교회를 설치한 수원지역의 선교사들은 수원 시내의 지리에 벌써 익숙해졌다고 전해왔다.

### 동구지부장단 이동

부산 동구지부의 지부장단이 일부 개편되었다. 이 근혁 지부장은 그의 제 1보좌였던 방 춘성 형제가 지방부서기로 감에따라 제 1보좌로 한민근 형제를 제 2보좌로 김 백주 형제를 지부서기로 전영준 형제를 임명하였다. 지난 2월 22일 지방부장에 의해서 지지가 물어진 동구지부장단은 건축 기금을 위한 모금에 열의를 다하고 있다.



### 새 선교사 8명 도착

지난 5월 9일 미국인 선교사 8명이 도착 선교에 임하고 있다.

### 김 진정 형제 결혼

동부지부의 지부장단 집행서기로 있는 김 진정 형제가 제 숙원 자매와 지난 4월 14일 시민회관에서 결혼하였다. 차 중환 지방부장의 주례로 이루어졌는데 김 형제는 용두동에 새 살림을 차렸다. 결혼식을 올린 김 형제와 제 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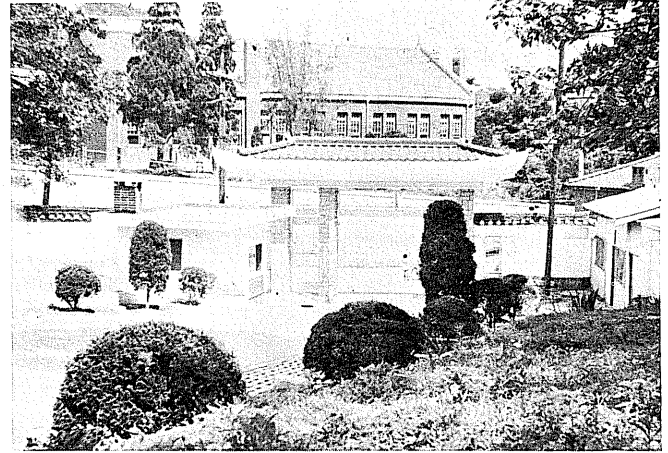
### 선교사 TV 출연

지난 4월 16일 부산TB C-TV에 선교사들이 출연하여 한·미 친선과 선교에 큰 역할을 하였다. 슬로버, 밀스, 루먼, 텡기, 색밀러, 스웨인 등의 선교사가 출연하였는데 외국인이 본 한국의 모습과 노래, 미국 민속 음악 등으로 다채로운 30분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수놓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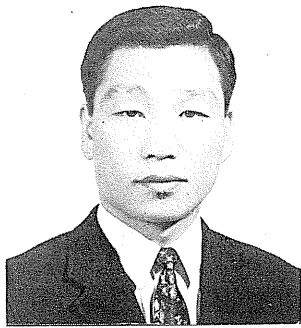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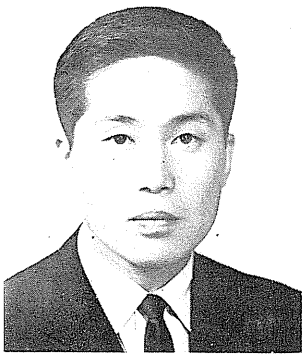


### 선교부 대문 완성

선교부의 한식 대문이 새로 세워졌다. 목제에 단청까지 했던 옛날의 대문과는 달리 콘크리트에 기와를 올리는 새로운 건축방식에 의하여 만들어졌는데 대형차의 통행이 불편하여 새로 세워진 대문은 수위실과 함께 흰색으로 단장되었다. 깨끗한 인상을 주는 청기와의 대문은 5월초 준공되었다.







### 김 광덕 장로 귀환

삼청지부 출신의 김 광덕 장로가 지난 2월 19일 귀환하였다.

광주, 동래(남부지부), 전주, 인천, 대전, 선교본부 등지를 다니며 2년간 봉사했던 그는 귀환 소감을 "선교사를 할 것인가로 방황하던 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조언을 준 분들에게 새삼 감사함을 느낀다" 고 했다.

### 이 정현 형제 도미

중앙 지방부장 제2 보좌로 봉사하던 이 정현 형제가 지난 3월 17일 하와이 교회 대학 부설 한국어 교사로 초빙되어 출발하였다.

귀환 선교사였던 그는 그곳에서 한국어로 파견되는 외국인 선교사들에게 이미 가르치고 있는 몇 형제들과 함께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최근 안부를 전해 온 바 있다.

### 이 주복 형제

#### "승공 통일의 길" 저술

북번지부의 이 주복 형제는 최근 '승공 통일의 길'이란 단행본을 저술하였다. 민주공화당 추최의 현상 논문에서 '승공 통일의 기본 방안'으로 입선한 바 있는 그는 국방 대학원 교수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그의 부지런 함은 젊은이에게 귀감이었다.

### 한인 2세 선교사로

안 승언(존 승언 안)장로가 두번째의 한국인 2세 선교사로 지난 4월 25일 한국 땅을 밟았다. 1958년 16살에 하킨스 장로에게 침례를 받고 다음 해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한 그는 가족과 떨어져서 뉴욕, 프로보, 신시나티 등을 전전하며 전자공학의 공부를 계속하다 작년말 오하이오 대학에서 "Determination of Friction Factors for Pulsating Flow in Distensible Tubes"란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바 있다.

주일학교 교사, 상향회 역원, 선교사로 오기 전에는 스테이크 장로 정원회 회장 등으로 교회에 봉사해 왔던 그는 자신의 부름을 거절한 적이 없었다면서 감독의 부름에 따라 선교사로 오게 되었다고 했다. 부름을 받고 자기의 결심을 부모님에게 전했을 때 회원이 아닌 부모님은 반대를 하셨지만 축복사의 축복 기록을 보고 자기의 결심을 굳혔다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감에 불타 있었다. 현재 광주지부에서 선교에 임하고 있는 그는 선교에 아직은 어려움이 없었다면서 늘 들어왔던 조국의 소식 때문에 놀라지 않았다면서 나라 사랑의 일면을 보였다. 그는 2년반을 한국에서 선교 사업을 하게 된다.



### 동래지역-지부로 승격

1968년 3월 15일 개최된 바 있는 동래지역이 지난 5월 3일 지부로 승격되었다. 그간 모든 보조조직을 갖춘 동래지부는 부산에 일찍 세워진 다른 지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착실히 발전을 해 오다가 이번이 지부로 승격되었다. 남부 지방부장을 모신 가운데 지부로 승격된 동래지부의 초대 지부장으로 박 관호 장로가 지지 되었다. 지부장 박 관호 장로는 "회원 모두가 지부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부는 머지 않아 숫적으로도 발전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들려 주었다. 사진:주일학교를 마치고 회원들과 함께. 윗열 좌단이 지부장 박 장로

### 한국인 선교사 동정

동대문 지부 출신의 조 태호 장로는 대구지부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고, 동부지부 출신의 박 관호 장로는 최근 지부로 승격한 동래지부 지부장으로, 성북지부 출신의 이 우영 장로는 전주지부에서, 부산지부 출신의 정 민호 장로는 서부지부에서, 동대문지부 출신의 하 봉식 장로는 춘천지역에서 선교에 임하고 있다.

이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년을 봉사하는 이들에게 격려의 글월이 끊이지 않음은 이들이 홀로 있지 않다는 산 증거이리라. 격려의 글 바랍니다.

# 평범의 시

리차드 엘. 이반스

● 윌리엄 오스리 경은(캐나다 의사 1849—1919) 우리 주변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평범한 사실을 부각시켜 글을 적고 이름하여 “평범의 시”라 하였다. “주변에 흩어져 있는 평범한 사태를 인식하는 능력보다 더욱 우리를 풍요하게 하는 것은 없다.……그것은 참된 삶의 시요—평범의 시요, 순박한 시민의 시요, 열심히 피곤하도록 일하는 여인의 시다. 그것은 사랑과 기쁨과 비애와 슬픔으로 점철되어 있다.” 우리는 흔히 불필요한 세상의 헛된 요소가 비대한 것으로 착각하지만 우리들의 세상은 신의와 인내와 고난에 도전하는 성실한 사람과 절망을 극복하고 병든 자와 갓난 아이를 돌보는 이들의 노력으로 부단히 전진하고 있다. 해야 할 바를 묵묵히 이행하는 이들이 없었던들 오늘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체가 인간의 사고나, 양심의 판단이나를 완전히 대신하지는 못한다. 진달이나 멧쟁이 아가씨가 세상의 고된 일, 꼭 해야 하는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대가 완전한 성실로 맡겨진 일에 충실하면 그대는 이 우주에 대하여 선에 기여하는 것이니……오 그대여 가라! 가서 그대의 일을 이행하라……기쁨과 사랑으로……열심으로 일하되……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하여 감사하라……”고 필립 부룩스\*는 말했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거든 바로 착수하라. 그것이 꼭 필요한 일이 아닐지라도……세상에는 어려움과 고난이 많은데 그토록 열심으로 훌륭하게 맡은 일을 잘해 내는 훌륭한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실한 사람, 간결한 것, 일상 생활의 임무, 훌륭하게 수행된 일—평범의 시에 대하여 감사하라.

\*필립 부룩스, 미국 감독과 교회의 감독

진리의 말씀은 유명한 물문 태버나클 합창단의 노래와 함께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5분부터 600키로 싸이클의 서울 중앙 방송국 제2방송에서 방송되고 있으며 560키로 싸이클의 AFKN에서도 매주일 오전 10시 5분부터 방송되고 있습니다.